

『傷寒溯源集』에 나타난 易學的 觀點 고찰

韓醫學古典研究所 博士後研究員
安鎭燾*

A Study on the *I-Ching* Perspective in *Shanghansuyuanji*

Ahn Jin-hee*

Post-doctoral Researcher at Institute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Objectives : This paper aims to study the *I-Ching* perspective in *Shanghansuyuanji*.

Methods : Key words associated with *I-Ching* was searched in *Shanghansuyuanji* and analyzed its meaning and categorized thematically.

Results & Conclusions : 1. Qianhuang symbolized Shaoyang, The Power of the Great hexagrams, Jueyin Peace hexagrams, Taiyin Gen Earth, Yangming Kun Earth, Shaoyin Return hexagrams, but didn't symbolize Taiyang, making it not uniform.

2. Qianhuang explained physiology focusing the change of YangQi with *I-Ching* perspective. This is possible because *Shanghanlun* thought that much of YangQi and *I-Ching* set a high value on Yang.

3. Qianhuang explained pathology such as insomnia, epigastric fullness, splenic constipation syndrome, Taiyinbing syndrome, somnolence, thirst, YinYang exchange with *I-Ching* perspective, it is meaningful because it enriches medical YinYanglun.

4. Qianhuang explained prescriptions such as Daqinglongtang, Zhenwutang, Shizaotang, Fuzixixintang, Dachaihutang, Baihutang, a comparison between Daqinglongtang and Xiaoqinglongtang with *I-Ching* perspective. This is helpful to grasp the image of prescriptions.

5. Qianhuang explained nature of drugs such as Guizhi, Fuling, Fuzi, Qiandan, Rougui with *I-Ching* perspective, and it combines well with the features of *I-Ching* with drugs efficacy.

6. Qianhuang explained diseases of the six Meridians curing time with *I-Ching* perspective. This shows diseases of the six Meridians recover when Corresponding Qi is vigorous or Conflict Qi appears, and it is persuasive.

For reasons mentioned above; *Shanghansuyuanji* is meaningful as *Shanghanlun* commentary.

Key Words : Qianhuang, *Shanghansuyuanji*, *Shanghanlun*, *I-Ching*, *Book of Changes*.

* Corresponding author : Ahn Jin-hee.

Institute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1 Hoegi-dong, Dongdaemun-gu, Seoul, Korea.

Tel : +82-2-961-9183, Fax : +82-2-961-9229, Email : jini@khu.ac.kr

Received(Aug 3, 2018), Revised(Aug 13, 2018), Accepted(Aug 13, 2018)

Copyright © The Society of Korean Medical Classics. All rights reserved.

©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 序論

『傷寒溯源集』은清代 錢潢이 1707년에 편찬한 『傷寒論』 注釋書이다. 錢潢은 『傷寒論』을 주석하면서 三陰三陽, 인체의 生理, 病證이나 病機 등 病理, 方劑, 藥性, 欲解時 등 여러 方面에서 『周易』의 卦象, 爻辭 등과 연관지어 설명하였다. 이에 논자는 錢潢의 易學的 觀點이 『傷寒論』을 해석함에 있어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살펴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를 살펴본 결과, 『傷寒溯源集』 가운데 나타난 錢潢의 易學的 觀點을 다룬 논문은 없었으며, 연구 방법은 錢潢이 저술한 『傷寒溯源集』 텍스트를 대상으로 하여 易學과 관련된다고 생각되는 검색어, 즉 卦, 易, 爻와 乾兌離震巽坎艮坤에서 既濟未濟 등에 이르기까지 총 64개의 卦名과 卦辭와 爻辭에 나오는 龍, 虎, 雲, 雨 등 주요 단어를 검색어로 설정하여 검색한 문장을 분석하고, 분석한 문장을 같은 주제끼리 묶어본 후에 주제별로 錢潢의 『傷寒論』을 보는 易學的 觀點을 살펴보았다.

II. 本論

1. 『傷寒溯源集』에 나타난 易學的 觀點

『傷寒溯源集』은 錢潢이 저술하였으나, 맨 앞부분 친구 周永年이 쓴 「陰陽發病六經統論」에서 『周易』과 『傷寒論』의 상관을 논하고 있다. 易은 奇偶, 즉 陽爻와 陰爻로 이루어져 있고, 『傷寒論』은 陰陽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乾坤으로부터 兌離震巽坎艮의 여섯 자식이 나오고, 陰陽으로부터 六經이 나오며, 六經의 병증의 다양성은 卦爻의 變動에 비견된다고 하였다. 또한 聖人께서 말씀져 뜻을 다하지 못한 면이 있기에 象에 그 이치를 구현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이치를 궁구하게 하였고, 仲景도 法으로써 證을 다하지 못하기에 寒熱으로써 陰陽을 구분하여 辨證으로써 法을 다하고자 하였다고 했다. 證은 象이고, 法은 理이며, 397法은 六經을 벗어날 수가 없고, 六經은 陰陽을 벗어날 수가 없으며, 능히 仲景의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易에 심취한 사람만이 가능하다고 하였다.¹⁾

또한 錢潢은 眞武湯의 方解에서 仲景이 消息을

깊이 알았으므로 그 方劑를 수립할 때의 마음가짐이 용의주도했음을 말하였다.²⁾ 消息은 陰陽의 消息으로 病으로 인하여 사람 몸에 나타나는 陰과 陽의 사그라듦과 불어남을 말하는데, 消息을 깊이 알았다는 것은 陰陽의 變化를 잘 파악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麻黃升麻湯의 方解에서도 “仲景 醫聖이 陰陽을 밝게 깨달아 消息을 깊이 알았으므로 法을 세워서 가르침을 드리웠으니, 어찌 잘못이 있겠는가?”³⁾라고 하였다. 眞武湯 方解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天人致一의 이치를 버리고서는 醫를 논의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⁴⁾, 天人致一의 이치란 陰陽의 이치를 말한다.

錢潢은 『傷寒論』 76조의 註釋에서 孫眞人의 말을 인용하여 太易을 알지 못하면 즉히 醫를 논의할 수가 없다고 하였다.⁵⁾ 이처럼 錢潢은 天地間의 陰陽 變化를 논의한 『周易』과 인체의 陰陽 變化로 나타난 病證을 기술한 『傷寒論』 사이의 상관을 깊이 인식하였다. 이에 論자는 錢潢이 『傷寒論』을 註釋함에 있어서 易學的 觀點으로 註釋한 것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 『傷寒論』을 易學的 觀點으로 파악하는 것의 의미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1) 三陰三陽 설명에 나타난 易學的 觀點

錢潢은 주로 三陰三陽을 풀이할 때에 易學的 觀

- 1) 錢潢 著, 周憲賓·陳居偉 校注. 傷寒溯源集. 北京, 學苑出版社. 2009. p.15. “余讀仲景書而見其參同于『易』也. 夫全『易』, 一奇耦也. 全論, 一陰陽也. 六子之生于乾坤, 六經之稟于陰陽也. 六經之淺深正變, 旁行疊見, 形能百出, 則卦爻之動變, 象數之紛淆也. 聖人以言不盡意而圖于象, 使人即象以窮理, 仲景以法不盡證而以寒熱分陰陽, 使人辨證以盡法, 故首標易知之寒熱, 易辨之陰陽, 然後申其證變, 出其方法, 而後可以言治也. 夫證即象也, 法即理也, 三百九十七法, 不出六經之中, 六經不出乎陰陽之外, 能讀仲景書者, 其唯深于『易』者乎.”
- 2) 錢潢 著, 周憲賓·陳居偉 校注. 傷寒溯源集. 北京, 學苑出版社. 2009. p.150. “仲景深知消息, 故其立方用意.”
- 3) 錢潢 著, 周憲賓·陳居偉 校注. 傷寒溯源集. 北京, 學苑出版社. 2009. p.387. “仲景醫聖, 洞曉陰陽, 深知消息, 故能立法垂訓, 豈有誤哉.”
- 4) 錢潢 著, 周憲賓·陳居偉 校注. 傷寒溯源集. 北京, 學苑出版社. 2009. p.150. “如此而曰舍天人致一之理者, 不足以譚醫, 何哉.”
- 5) 錢潢 著, 周憲賓·陳居偉 校注. 傷寒溯源集. 北京, 學苑出版社. 2009. p.86. “孫眞人云: 不知太易, 不足以言醫.”

점으로 설명을 하였다. 錢潢은 『傷寒論』 1조 “太陽의 병증은 脈이 浮하고 머리와 뒷목이 뻣뻣하면서 아프고 惡寒한다.”의 註釋에서 太陽이나 膀胱을 易學的 觀點으로 설명한 것은 아니지만, 太陽과 表裏를 이루고 있는 少陰의 臟인 腎을 설명할 때에 易學的 觀點으로 설명하였다. 腎이 坎水가 되어 一陽이 二陰의 사이에 거처하고, 眞陽이 眞陰의 안에 갈무리되어 그 象을 水中有火라고 하였다. 음식물이 인체 내에 들어가 淸한 것은 營氣가 되고, 濁한 것은 下焦로 내려가 腎中의 眞陽이 그 氣를 쥘 올려 皮膚에 도달하여 衛氣가 된다고 하면서, 衛氣 생산의 동력이 腎中眞陽에 있음을 밝혔다. 또한 腎中眞陽에서 생산된 衛氣가 皮膚營衛를 통괄하여 風寒을 막아주는 陽氣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분포되는 부위가 몸 가장 바깥인 太陽經으로 太陽은 盛陽이고, 陽이 왕성하지 않으면 風寒을 막아낼 수 없다고 하였다.⁶⁾

錢潢은 『傷寒論』 263조 “少陽의 病證은 입이 쓰고 목이 건조하며 눈이 어지럽다.”의 註釋에서 少陽의 개념을 설명할 때에 易學的 觀點으로 설명하였다. “少陽은 足少陽膽經이고, 膽은 東方에서 初生하는 木이 되는데, 少陽이라고 이름 지은 것은 天地의 陽氣가 黃泉에서 생하여 草木의 뿌리가 至陰 坤土의 가운데에서 움트게 되면 이를 厥陰이라고 하고, 三陽이 열려 커짐에 이르러 陽氣가 땅을 뚫고 나오면 씩이 生動하고, 2월에는 陽氣가 위로 올라가서 우레와 번개로 두드리고 바람과 비로 적서주면 草木이 뻗어나가고, 陽氣가 草木에 붙어서 初生하여 少陽이

된다.”고 하였다.⁷⁾ 이는 陽氣가 盛陰 가운데에서 始生하여 地雷復卦(䷗)가 된 후, 一陽이 二陽으로, 二陽이 三陽으로 자라나 陰氣와 陽氣가 균등한 地天泰卦(䷊)를 厥陰으로 본 것이고, 地天泰卦의 4爻에서 陰爻가 陽爻로 전환되면 雷天大壯(䷡)이 되는데, 이를 씩이 땅을 뚫고 나오는 象으로 인식하여 少陽이라고 하였다. 263조의 註釋에서 錢潢이 少陽의 개념을 설명할 때 따로 卦象을 설명하지는 않았으나, 厥陰病 提綱이 나오는 326조의 註釋에서 厥陰과 表裏를 이루는 少陽의 개념을 설명할 때 雷天大壯卦라고 한 것과 少陽病 提綱이 나오는 263조 註釋에서 12辟卦 중 雷天大壯卦에 속하는 2월을 예로 들어서 少陽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錢潢이 少陽과 雷天大壯卦를 연관지어서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錢潢은 『傷寒論』 273조 “太陰의 病證은 배가 그득하면서 吐하고, 음식이 내려가지 않으며, 저절로 실사하는 것이 더욱 심하고, 때때로 배가 저절로 아프니, 만약 瀉下하면 반드시 가슴 아래가 멎히고 단단해진다.”의 註釋에서 太陰은 盛陰이고, 東北의 艮土로, 先天의 坎中의 生化를 거치지 않은 陽氣를 얻어서 생긴 것으로, 땅의 純陰을 본받았다고 하였다. 太陰은 盛陰을 體로 삼지만, 陽氣를 用으로 삼으므로 인체에 있어서 太陰脾土가 五臟에서 가운데에 거하여 靜順한 體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健運의 쓰임을 지니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臟腑를 陰陽으로 나누면 臟이 陰이 되고, 腑가 陽이 되는데, 錢潢은 太陰脾土를 靜順한 體를 갖추면서도 健運의 쓰임을 가지고 있고, 이를 東北의 艮土라고 하였다. 脾와 표리 관계에 있는 胃는 水穀의 바다로 西南의 坤土이고, 陽明에 속하며 水穀을 腐熟消化시켜 땅의 두터움으로 만물을 싣는 象이 되어 五味를 갈무리하면서 五穀을 소화시킨다고 하였다.⁸⁾

6) 錢潢 著, 周憲賓·陳居偉 校注. 傷寒溯源集. 北京. 學苑出版社. 2009. p.16. “太陽之爲病, 脈浮, 頭項強痛而惡寒. 此舉中風傷寒之總脈總證而言, 乃太陽三篇之大綱也. 太陽者, 膀胱寒水之經也, 膀胱爲稱寒水乎. 夫腎者, 天一之水也. 「上古天真論」云: 腎者主水, 聚五藏六府之精, 而藏之者也. 蓋以腎與膀胱, 一臟一腑, 相爲表裏, 而爲一合也. 既爲寒水, 曷爲又稱太陽乎. 腎爲坎水, 一陽居于二陰之間, 眞陽藏于眞陰之內, 水中有火. 穀入于胃, 其清氣化而爲營, 行于脈中, 穀之濁氣, 降于下焦, 而腎中之眞陽, 蒸騰其氣, 行于脈外, 直達皮膚而爲衛氣. 故膀胱雖爲腎臟寒水之腑, 而寒水之中, 其所以蒸騰發越而爲衛氣者, 則又腎中之眞陽也. 故衛氣之行, 一日一夜, 五十周于身, 晝行于陽二十五周, 夜行于陰二十五周. 平旦陰氣盡, 陽氣出于日, 日張則氣上于頭, 循項下太陽矣, 故曰太陽. 太陽者, 盛陽也. 陽不盛, 不足以密腠理而衛風寒, 故爲六經之首, 爲皮膚營衛之總統.”

7) 錢潢 著, 周憲賓·陳居偉 校注. 傷寒溯源集. 北京. 學苑出版社. 2009. p.266. “少陽之爲病, 口苦咽乾目眩也. 少陽者, 足少陽膽經也. 胆爲東方初生之木, 名之曰少陽者, 天地之陽氣生于黃泉, 則草木之根莖, 勾萌于至陰坤土之中, 謂之厥陰. 至三陽開泰, 陽氣透地, 則萌芽生動. 二月而陽氣上騰, 以雷霆之鼓, 風雨之潤, 而草木條達, 陽氣附于草木而初生, 故爲之少陽.”

8) 錢潢 著, 周憲賓·陳居偉 校注. 傷寒溯源集. 北京. 學苑出版社. 2009. pp.312-313. “太陰之爲病, 腹滿而吐, 食不下,

Table 1. The symbolization of SanYinSanYang in *Shanghansuyuanji*

三陰三陽	太陽	陽明	少陽	太陰	少陰	厥陰
의미	盛陽	兩陽合明 ⁹⁾	初陽	盛陰	陰中含陽	至陰, 兩陰交盡, 陰極陽回
표상화	×	坤土(☷)	雷天大壯(☳☰)	艮土(☶)	地雷復(☱☷)	地天泰(☱☰)

錢潢은 『傷寒論』 281조 “少陰의 病證은 脈이 微細하고 다만 잠들려고 한다.”의 註釋에서 少陰을 陰中에 陽을 함유하고 있는 體라고 정의하였다. 64괘로는 地雷復卦(☱☷)에 해당하고, 8괘로는 陰中에 陽이 있는 坎卦(☵)에 해당되며, 寒水 안에 陽氣가 潛藏되어 있는 象을 潛龍이라고 하였다.¹⁰⁾

錢潢은 『傷寒論』 326조 “厥陰의 病證은 消渴하고, 氣가 올라가 心을 치며, 心中이 아프며 열이 나고, 배고프지만 먹으려고 하지 않으며, 먹으면 회충을 토하고, 瀉下하면 설사를 그치지 않는다.”의 註釋에서 厥陰을 至陰, 陰이 極하여 陽이 회복되는 곳이라고 하면서 草木이 陽氣를 얻어 至陰 坤土의 가운데에서 움터 나오는 것으로, 64卦로는 地天泰卦

(☱☰)이고, 12辰으로는 寅이라고 하면서 땅을 아직 뚫고 나오지 않은 木이고, 사람에게 있어서는 厥陰 肝木이라고 하였다. 반면에 만약 陽氣가 땅을 뚫고 나와서 草木이 발생하게 되면 이는 64괘로 雷天大壯卦(☳☰)에 해당하고, 12辰으로는 卯로 이미 땅밖으로 나와서 가지와 잎이 펼쳐진 木으로 少陽이고, 膽經에 속한다고 했다. 厥陰은 비록 至陰에 속하지만, 陽氣가 이미 자라서 陰陽이 서로 半半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陰中의 陽으로 아직 透達하지 못하였으므로, 熱多厥少는 병이 물러나는 것이고, 熱少厥多是 병이 진행하는 것이라고 하였다.¹¹⁾

2) 인체 生理 설명에 나타난 易學的 觀點

錢潢은 『傷寒論』 3조, 38조, 166조, 169조의 註釋, 傷寒論無發瘕說에서 인체의 生理를 설명할 때 易學的 觀點으로 설명했다.

錢潢은 『傷寒論』 3조 “太陽病에 혹 이미 發熱하였거나 혹 아직 發熱하지 않았거나 반드시 惡寒하고 신체가 아프며 구역질을 하고, 脈의 陰陽이 모두 繁할 경우에는 傷寒이라고 명명한다.”의 辨誤에서 寒氣와 陽氣의 특성을 설명할 때에 易學的인 觀點으로 설명하였다. 陽氣가 봄에 上升하여 만물을 發生시키며, 여름에는 무럭무럭 자라나게 하고, 가을에는 수렴하여 결실을 맺게 하며, 겨울에는 갈무리하여 다

自利益甚, 時腹自痛, 若下之, 必胷下結硬. 此總敘太陰之見症. 言太陰經受病, 必見腹滿而吐等證也. 然非謂諸證皆具, 方爲太陰也. 以後凡稱太陰病, 必見此等症者, 乃爲太陰病也. 夫太陰者, 盛陰也, 爲東北之艮土. 得先天坎中未經生化之陽氣而生者, 地之純陰象焉. 以地居天之中, 先天來復之陽, 生于黃泉之下, 透地而發生萬物. 蓋以盛陰爲體, 而以陽氣爲用, 所以地寒則五穀不生, 土暖則發生萬物, 故人身之太陰脾土, 亦居五臟之中, 具靜順之體, 而有健運之用. 以胃爲之腑而爲水穀之海, 乃西南之坤土, 爲後天離火之所生, 故屬陽明而能腐化水穀, 爲坤厚載物之象, 是以胃則藏五味而化五穀, 脾則行精液而運精微, 周身臟腑經絡, 四肢筋骸, 皆受其生和長養, 爲生氣之所自出.”

9) 錢潢 著, 周憲賓·陳居偉 校注. 傷寒溯源集. 北京, 學苑出版社. 2009. p.209. “『靈樞·陰陽系日月篇』云: 辰爲左足之陽明, 巳爲右足之陽明. 此兩陽合明於前, 故曰陽明. 蓋辰巳之前, 午居離位, 乃至陽之地, 邪并于陽, 陽盛則熱也. 故『陰陽別論』以胃脘之陽爲二十五陽之主, 所以能運化腐熟, 而爲水穀之海也. 邪氣入之, 則陽邪熾盛, 故不惡寒而反惡熱也.” 엄밀히 말하여 錢潢이 陽明을 兩陽合明이라고 정의할 때에는 易學的 觀點으로 설명하지는 않고, 『靈樞·陰陽系日月篇』에 나오는 12地支와 12經脈의 월별 배속의 위치 관계로 설명하였다.

10) 錢潢 著, 周憲賓·陳居偉 校注. 傷寒溯源集. 北京, 學苑出版社. 2009. pp.334-335. “少陰之爲病, 脈微細, 但欲寐也. 少陰者, 陰中含陽之體也. 十一月冬至子之半, 陽氣萌于黃泉. 在六十四卦爲復, 在八卦爲坎, 一陽居于二陰之中. 寒水之內, 陽氣潛藏, 『易』所謂潛龍也.”

11) 錢潢 著, 周憲賓·陳居偉 校注. 傷寒溯源集. 北京, 學苑出版社. 2009. pp.369-370. “厥陰之爲病, 消渴, 氣上撞心, 心中疼熱, 飢而不欲食, 食則吐衄, 下之利不止. 厥陰者, 至陰也. 陰氣至此而極, 故謂之厥陰. 太少兩陰交盡之經, 爲陰極陽回之處, 草木得陽氣而勾萌于至陰坤土之中. 在卦爲泰. 在十二辰爲寅. 陽氣將出而未出, 爲尚未透地之木, 故在人爲厥陰肝木. 至陽氣透地而草木發生, 在卦爲大壯. 在十二辰爲卯, 乃已出土而抽條發葉之木, 在人則爲少陽而屬胆經矣. …中略…; 厥陰雖屬至陰, 而陽氣已長, 陰陽相半矣. 然終是陰中之陽, 其氣猶未透達, 故通篇以熱多厥少爲病之退, 熱少厥多爲病之進.”

음 봄 發生의 근본이 되게 하므로 겨울에 갈무리해 둔 氣는 만물의 시작과 끝을 이루게 하는 正氣이므로 傷하게 할 수가 없고, 傷하게 하면 病이 된다고 하였다. 天地의 기운이 10월에는 陰氣가 이미 지극하여 卦가 純坤(☷)에 속하고, 11월에는 一陽이 盛陰 가운데에서 생하여 卦가 復卦(☱)에 속하는데, 그 象은 坎卦(☵)로 一陽이 二陰 가운데에 거처하여 寒水가 胞胎가 되어 涵藏됨이 깊고도 견고하니, 이른바 ‘潛龍勿用’이라고 하였다. 寒水에 潛藏되어 있던 陽氣는 점차로 자라나 東方 震卦(☳)의 發生의 주체가 되므로 地天泰卦(☶)를 이루고, 2월이 되면 陽氣가 비로소 壯해져 땅을 뚫고 올라가 風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陽氣가 땅을 뚫고 나오는 때를 水雷屯卦(☵) 象傳의 말을 차용하여 ‘天造草昧之時’¹²⁾라고 하고, 『周易·繫辭上傳』에 나오는 “鼓之以雷霆, 潤之以風雨.”¹³⁾를 부분적으로 인용하여 우레와 천둥, 비바람이 불어야 만물이 化生하고 초목이 뻗어나갈 수 있다고 했다. 錢潢은 인체 陽氣의 動力을 兩腎 가운데에 갈무리되어 있는 命門의 眞陽으로 파악하였으며, 이를 두 개의 陰爻 가운데에 한 개의 陽爻가 있는 坎卦(☵)의 象으로 표상화하였다. 그 潛藏되어 있는 眞陽이 固密하면 元陽이 충족하고, 이 元陽을 바탕으로 衛氣도 만들어져 온몸에 퍼지면 三焦가 되지만, 眞陽이 손상되면 陽氣를 산포할 수가 없어서 눈과 귀가 어둡고, 음식물을 運化할 수가 없으며, 氣化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¹⁴⁾ 이는 『傷寒論』 3

조가 傷寒의 대표적인 조문이므로 傷寒病證의 病機를 陽氣의 傷함에 초점을 두어 설명한 것으로, 陽氣의 盛衰를 坤卦(☷), 復卦(☱), 泰卦(☶) 등으로 표상화하고, 寒水안에 潛藏된 眞陽의 象을 坎卦(☵)로 표상화하는 등 易學的 觀點으로 설명한 것이다.

錢潢은 『傷寒論』 38조 “太陽 中風에 脈이 浮緊하고 發熱하며 惡寒하고 몸에 통증이 있으며, 땀이 나오지 않고 煩燥한 경우에는 大靑龍湯으로 주로 치료한다. 만약에 脈이 微弱하고 땀이 나오며 惡風하는 경우에는 복용할 수가 없으니, 복용하면 厥逆하고 근육이 놀래고 肌肉에 쥐가 나니, 이것이 逆이 되니, 眞武湯으로 구제한다.”¹⁵⁾의 大靑龍湯 方解에서 龍은 陽物로 스스로 날아올라 변화할 수가 없고, 陽氣를 따라 出入하고 上下로 움직여 그 쓰임을 이루는데, 겨울에 陽氣가 하부에 있을 때는 重天乾卦(☰) 初九爻辭를 인용하여 ‘潛龍勿用’¹⁶⁾이라고 했고, 陽氣가 땅에서 나온 것을 重天乾卦 九二爻辭를 인용하여 ‘見龍在田’¹⁷⁾이라고 했으며, 陽氣의 상승을 重天乾卦 九五爻辭를 인용하여 ‘飛龍在天’¹⁸⁾이라고 하는 등 陽氣 升降의 흐름을 重天乾卦의 爻辭를 인용하여 설명했다. 또한 錢潢은 겨울동안 潛藏되어 있는 陽氣의 象을 『周易·繫辭下傳』을 인용하여 “龍蛇之蟄, 以存身也.”¹⁹⁾라고 했고, 陽氣가 출하는 것을 『周易·

氣始壯, 透地上騰而爲風矣。由此天造草昧之時, 而雷霆風雨, 萬物化生, 草木條達矣。若傷其寒水之胞胎, 則藏陽損泄, 至春而不能暢達, 則六氣不時, 旱澇不均, 饑荒荐至矣。人身以腎爲冬臟, 命門之眞陽, 藏於兩腎之中, 即坎卦之象, 乃大極中涵藏之元氣也, 爲生氣之本, 三焦之原。一陽藏於兩腎寒水之中, 潛養固密, 則元陽充足, 然後清陽之氣, 升越上騰, 蒸穀氣而外達, 則爲衛氣, 遊一身而布化, 則爲三焦。若此火損傷, 則三焦無以布其陽氣。上焦無此, 則耳目失其聰明。中焦無此, 則水穀不能運化。下焦無此, 則氣化不得流行。”

12) 明文堂編輯部 校閱. 原本周易 乾. 서울. 明文堂. 1999. p.192. “天造草昧, 宜建侯, 而不寧”
13) 明文堂編輯部 校閱. 原本周易 坤. 서울. 明文堂. 1999. pp.990-991. “鼓之以雷霆, 潤之以風雨, 日月運行, 一寒一暑, 乾道成男, 坤道成女.”
14) 錢潢 著, 周憲賓·陳居偉 校注. 傷寒溯源集. 北京. 學苑出版社. 2009. pp.66-69. “太陽病, 或已發熱, 或未發熱, 必惡寒體痛嘔逆, 脈陰陽俱緊者, 名曰傷寒, …中略…; 【辨誤】夫寒雖六氣之一, 實冬令嚴寒肅殺之藏氣也。天地之陽氣, 自春令上升, 出地而發生萬物, 至夏令而暢茂盛長矣。盛極當衰, 故行秋令以收斂成實, 是爲西成。既成則有冬氣以藏之, 又爲來春發生之根本, 故冬藏之寒氣, 乃天地萬物成始成終之正氣。所以不可傷, 傷之則爲病矣。然何以傷之即病乎。蓋天地之陽氣, 至十月則陰氣已極, 卦屬純坤。十一月而一陽生於盛陰之中, 在卦爲復, 其象爲坎。一陽居於二陰之中, 以寒水爲之胞胎, 涵藏深固, 潛養初陽, 所謂潛龍勿用也。待漸長出地, 而爲東震發生之主, 故其卦爲泰, 乃立春之候也。至二月而陽

15) 『傷寒論』 38조에는 ‘以眞武湯救之’가 없으나, 錢潢이 쓴 『傷寒溯源集』에는 ‘此爲逆也’ 다음에 ‘以眞武湯救之’가 있어서 이를 따랐다. 이는 아마도 方有執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16) 明文堂編輯部 校閱. 原本周易 乾. 서울. 明文堂. 1999. p.112. “初九, 潛龍勿用.”
17) 明文堂編輯部 校閱. 原本周易 乾. 서울. 明文堂. 1999. p.113. “九二, 見龍在田, 利見大人.”
18) 明文堂編輯部 校閱. 原本周易 乾. 서울. 明文堂. 1999. p.117. “九五, 飛龍在天, 利見大人.”
19) 明文堂編輯部 校閱. 原本周易 坤. 서울. 明文堂. 1999. p.1090. “尺蠖之屈, 以求信也, 龍蛇之蟄, 以存身也, 精義入

雷地豫卦(䷏)·象傳의 ‘雷出地奮’²⁰⁾을 인용하여 설명했으며, 陽氣의 활동으로 만물이 번영하는 象을 『周易·繫辭上傳』 “鼓之以雷霆, 潤之以風雨.”²¹⁾를 빌려 설명하였다.²²⁾

錢潢은 『傷寒論』 166조 “病이 桂枝證과 같은데, 머리가 아프지 않고, 뒷목이 뻣뻣하지 않으며, 寸脈이 약간 浮하고 胸中이 막혀 단단하며, 氣가 咽喉로 上衝하여 숨을 쉴 수가 없는 경우는 이는 가슴에 寒邪가 있기 때문이다. 마땅히 吐해야 하니, 瓜蒂散이 마땅하다.”의 註釋에서 寸脈을 『素問·脈要精微論』의 ‘上附上’이라고 하면서 옛사람들이 脈을 논함에 하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상부로 진행함은 易卦에서 爻를 쌓아 卦를 만드는 방식이 하부에서 시작해서 상부로 진행하는 것과 유사하며, 이는 天地의 陽氣가 하부로부터 위로 올라가기 때문이라고 했다. 寸口의 바깥쪽 반에서는 肺를 살피고, 안쪽 반에서는 胸中을 살피는데, 寸脈에서 微浮가 나타나고 胸中이 痞硬하며, 氣가 咽喉쪽으로 上衝하여 숨을 쉴 수가 없는 것은 胸部에 寒邪가 있는 것으로 吐法으로 다스려야 함을 강조하였다.²³⁾

錢潢은 『傷寒論』 169조에 나오는 “傷寒에 大熱이 없고, 입이 건조하며 갈증이 나고, 心煩하며, 등에 약간 惡寒이 있는 경우에는 白虎加人參湯으로 主治한다.”의 주석에서 口中和하면서 背惡寒이 있는 경우에는 少陰病이라서 附子湯으로 다스리고, 口燥渴하면서 背微惡寒한 경우는 陽明病이라서 白虎加人參湯으로써 다스린다고 구별하였다. 등을 陽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陰으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 方有執과 喻嘉言 등의 역대 『傷寒論』 주석자들이 陰으로 본 것에 반대하였고, 『周易』에서 背를 曄의 象으로 본 것은²⁴⁾ 다만 動靜으로 陰陽을 파악한 것이라고 하면서 등쪽으로 純陽인 督脈과 太陽經이 지나고, 『素問·金匱真言論』에서 “사람 몸의 陰陽은 등이 陽이 되고, 배가 陰이 된다.”라고 한 것을 내세우면서 등을 陽이라 하면서도, 169조에서 나타나는 背微惡寒의 病機는 內熱生外寒으로 파악하였다.²⁵⁾ 비록 여기

發熱汗出惡風頭項強痛者是也。以如桂枝證之發熱汗出惡風而頭不痛, 項不強, 則知非中風證矣。然但寸脈微浮, 寸脈者, 氣口脈也, 即『脈要精微論』之上附上, 右外以候肺, 內以候胸中, 亦即『靈樞·禁服篇』所云: 寸口主中, 人迎主外之義也。謂之上附上者, 古人論脈, 自下而上, 猶易卦之從下而上也。蓋以天地之陽氣, 自下而上故也。自尺以上曰附上, 附上者, 關脈也, 寸在關上, 故曰上附上也, 言寸口之外半以候肺, 內半以候胸中也。浮主風邪在表, 浮脈雖微, 亦發熱汗出惡風也。浮主上焦, 故邪在胸中也, 然既非中風之邪入裏, 而胸中痞硬, 上衝咽喉不得息者, 以胸中有寒邪故也。胸有寒邪, 則陽氣不得宣通, 津液不能流貫, 致成痞硬, 其氣不得下達, 所以逆衝咽喉而不得息也。邪在上焦, 因勢利導, 應從上越, 當用『內經』高者因而越之之法, 故以瓜蒂散吐之, 使邪從上越, 則胸中氣自和平矣。”

神, 以致用也, 利用安身, 以崇德也.”
20) 明文堂編輯部 校閱. 原本周易 乾. 서울, 明文堂. 1999. p.358. “象曰雷出地奮豫, 先王以作樂崇德, 殷薦之上帝以配祖考.”
21) 明文堂編輯部 校閱. 原本周易 坤. 서울, 明文堂. 1999. pp.990-991. “鼓之以雷霆, 潤之以風雨, 日月運行, 一寒一暑, 乾道成男, 坤道成女.”
22) 錢潢 著, 周憲賓·陳居偉 校注. 傷寒溯源集. 北京, 學苑出版社. 2009. pp.143-147. “太陽中風, 脈浮緊, 發熱惡寒身疼痛, 不汗出而煩燥者, 大青龍湯主之. 若脈微弱, 汗出惡風者不可服. 服之則厥逆筋惕肉瞤, 此爲逆也, 以眞武湯救之. …中略…; 青者, 東方木之色也. 龍, 陽物也, 蓋飛騰變化, 行雨之神物也. 然龍之爲物也, 特鱗蟲之長耳, 非能自爲飛騰變化也, 不過隨陽氣而出入上下, 以成其用耳. 故三冬陽氣在下, 則潛藏伏蟄而不見, 故謂之潛龍勿用. 陽氣出地, 則曰見龍在田. 至陽氣上升, 則曰飛龍在天矣. 其所以潛而勿用者, 以三冬陽氣在下, 則陰氣在上, 龍性純陽, 故潛藏於陽氣之中而不敢出, 出遇陰寒肅殺之氣, 則死矣. 故曰龍蛇之蟄, 以存身也. 其出也, 陽氣上升, 則雷出地奮, 龍隨之而啓蟄上騰, 此所謂鼓之以雷霆, 潤之以風雨. 而少陽之氣, 發生萬物, 草木叢榮矣.”
23) 錢潢 著, 周憲賓·陳居偉 校注. 傷寒溯源集. 北京, 學苑出版社. 2009. pp.137-138. “病如桂枝證, 頭不痛, 項不強, 寸脈微浮, 胸中痞硬, 氣上衝咽喉不得息者, 此爲胸有寒也. 當吐之, 宜瓜蒂散. 此條既非中風, 亦非傷寒, 當在風寒並感, 及風溫例中. 因胸中痞硬, 故亦附此. 桂枝證者, 乃風邪在衛,

24) 明文堂編輯部 校閱. 原本周易 坤. 서울, 明文堂. 1999. pp.831-832. “象曰艮止也, 時止則止, 時行則行, 動靜不失其時, 其道光明, 艮其止, 止其所也. 上下敵應, 不相與也, 是以不獲其身行其庭不見其人无咎也.”
25) 錢潢 著, 周憲賓·陳居偉 校注. 傷寒溯源集. 北京, 學苑出版社. 2009. pp.175-176. “傷寒無大熱, 口燥渴, 心煩, 背微惡寒者, 白虎加人參湯主之. 此所以察陰陽寒熱之辨也. 言傷寒本發熱無汗, 而曰無大熱者, 言邪不在表也. 口燥渴而心煩者, 邪已入裏, 陽明病也. 成氏謂背爲陽, 背惡寒口中和者, 少陰病也, 當與附子湯. 今口燥而渴, 背雖惡寒, 此裏也. 惡寒亦不至甚, 故曰微惡寒, 與白虎湯. 此說最爲中窺, 可見口中和之背惡寒, 與口燥渴之背惡寒, 其表裏陰陽迥別. 而附子湯與白虎湯之治, 亦天淵殊絕矣. 方氏以背爲人身至陰之地, 不勝寒而有餘惡, 誤矣. 『高論』尤而效之, 何也. …中略…; 易卦以背爲艮止之象者, 以身爲動物, 惟背則止耳, 此又以動靜爲陰陽也. 若以人身之經脈言之, 則督脈爲純陽, 而太陽之經脈, 夾督脈而行於兩旁. 任脈爲至陰, 而太陰經之脈穴, 夾

서 易學的인 觀點을 차용하여 背가 動靜으로 따졌을 때 靜하므로 陰에 속한다고 한 것이 白虎加人參湯을 쓰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지는 않아 지엽적인 부분에서 易學的인 觀點을 차용한 것이지만, 인체의 부위를 陰陽으로 나누어 설명함에 있어서 易學的인 觀點을 차용하여 설명한 부분이 있다고 사료된다.

錢潢은 傷寒論無發癍說이라는 논설에서 인체 生理를 易學的인 觀點으로 설명하였다. 겨울에 날씨가 따뜻하면 來復하는 陽氣를 閉藏할 수가 없어서 少陽의 生氣가 퍼지지 않고, 疫病을 앓으며 흉년에 굶주리게 되고, 腎은 坎에 소속되고, 眞陽은 兩腎寒水 가운데에 감춰져 있는데, 만약 精을 잃으며 腎을 배설하고 寒水로 감추어 둔 氣가 傷함을 받으면 감춰진 陽이 敗泄되어 少陽의 氣가 升發할 수가 없고, 腎을 호위하는 陽氣가 固密하지 못하여 風寒溫暑의 邪氣가 모두 虛한 틈을 타고 들어갈 수가 있다고 설명하였다.²⁶⁾

3) 인체 病理 설명에 나타난 易學的 觀點

錢潢은 『傷寒論』 61조, 131조, 179조, 273조, 281조, 373조, 392조의 註釋에서 晝日煩躁不得眠, 痞症, 脾約證, 太陰病證, 但欲寐, 渴症, 陰陽易 등의 病證病理를 易學的 觀點으로 설명했다.

錢潢은 『傷寒論』 61조 “瀉下한 뒤에 다시 發汗하여 晝에는 煩躁하여 잠을 잘 수가 없었으나, 밤에 안정되며, 구역질하지 않으며 갈증이 없고, 表證이 없으며, 脈이 沉微하고 몸에 큰 熱이 없는 경우에는 乾薑附子湯으로 주로 치료한다.”의 註釋에서 晝에

煩躁하여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을 陰陽相爭으로 보고 이를 『周易·坤卦(☷)·文言傳』에 나오는 “陰疑於陽必戰, 爲其嫌於無陽.”²⁷⁾을 인용하여 설명하였다. 攻下法을 쓴 뒤에 發汗하였으므로 陽虛하고, 陽虛하면 陰盛한데, 晝에는 陽盛한 시간대이므로 비록 신체의 陽은 虛하지만, 陽盛한 외부적 요인에 의해 陰과 더불어 싸울 수가 있으므로 陰陽相爭하여 不得眠하게 되고, 이와 같은 상황을 『周易·坤卦(☷)·文言傳』을 인용하여 설명했다.²⁸⁾

錢潢은 『傷寒論』 131조 “病이 陽에서 발생했는데, 도리어 瀉下하여 열이 들어가서 結胸을 만들고, 病이 陰에서 발생했는데, 도리어 瀉下하여 인하여 痞를 만드니, 結胸을 이루는 이유는 瀉下를 너무 일찍 시켰기 때문이다.”의 註釋에서 痞症의 발생을 설명할 때에 天地의 氣가 서로 交通하지 않아서 否(☷)를 이룬다고 했는데²⁹⁾, 이는 『周易·天地否卦(☷)·象傳』에 나오는 “天地不交而萬物不通也.”³⁰⁾를 차용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錢潢은 『傷寒論』 179조 중 “太陽陽明은 脾約이 이것이다.”의 註釋에서 脾의 역할은 胃를 위해서 津液을 사방으로 산포시키는 것인데, 太陽病에 發汗法, 攻下法, 利小便法 등을 써서 津液을 망실함으로 인하여 胃에 사방으로 산포할 津液이 없는 것이 脾約

任脈而行於兩旁, 此腹背之陰陽也. 豈可以背爲至陰之地乎. 若必以背爲至陰之地, 則『素問·金匱真言論』所云: 人身之陰陽, 則背爲陽, 腹爲陰, 豈經文反爲謬語乎. 然此條之背惡寒, 口燥渴而心煩者, 乃內熱生外寒也, 非口中和之背惡寒, 可比擬而論也, 故以白虎加人參湯主之.”

26) 錢潢 著, 周憲賓·陳居偉 校注. 傷寒溯源集. 北京. 學苑出版社. 2009. pp.181-182. “夫癍症爲外感證中之最劇, 其毒厲之氣, 往往天割人性命. 而仲景『傷寒論』中, 於六經之證治, 則寥寥言之, 諄諄詳盡, 絕無一字論及癍症者, 何也. 其意蓋以中風傷寒, 及溫病瘧濕喝等症, 皆人所自致, 猶天地之氣, 冬月溫緩, 不能閉藏其來復之陽, 少陽之生氣不布而疾疫熾荒. 人身之腎, 屬坎而爲冬臟, 眞陽藏於兩腎寒水之中, 若失精泄汗, 寒水包藏之氣受傷, 則藏陽敗泄, 少陽之氣不能升發, 而衛外之陽氣不密, 風寒溫暑之邪, 皆可乘虛而入.”

27) 明文堂編輯部 校閱. 原本周易 乾. 서울. 明文堂. 1999. p.188. “陰疑於陽必戰, 爲其嫌於無陽也, 故稱龍馬, 猶未離其類也, 故稱血馬, 夫玄黃者, 天地之雜也, 天玄而地黃.”

28) 錢潢 著, 周憲賓·陳居偉 校注. 傷寒溯源集. 北京. 學苑出版社. 2009. p.52. “下之後, 復發汗, 晝日煩躁不得眠, 夜而安靜, 不嘔不渴, 無表證, 脈沉微, 身無大熱者, 乾薑附子湯主之. 上文言下後復發汗, 必振寒而脈微細, 知其爲內外之陽氣皆虛矣, 而此條之下後復汗, 致晝日煩躁不眠, 夜而安靜者, 何也. 蓋晝者, 陽也, 夜者, 陰也. 煩躁屬陽, 而躁則陰盛迫陽之所致也. 夫衛陽與營陰和協, 則能安臥. 陽虛而煩, 陰盛而躁, 故不得眠也. 下而復汗, 陽氣大虛, 陽虛則陰盛, 晝則陽氣用事, 且衛氣行陽二十五度之時, 陽氣雖虛, 尚能與陰爭, 故晝日煩躁不得眠. 月令仲夏仲冬二至之候, 陰陽偏勝則陰陽爭, 即『易』所謂陰疑於陽必戰, 爲其嫌於無陽之義也. 夜則陰氣獨治, 陽微不能與爭, 故安靜也.”

29) 錢潢 著, 周憲賓·陳居偉 校注. 傷寒溯源集. 北京. 學苑出版社. 2009. p.101.

30) 明文堂編輯部 校閱. 原本周易 乾. 서울. 明文堂. 1999. p.306. “彖曰否之匪人, 不利君子貞, 大往小來, 則是天地不交而萬物不通也, 上下不交而天下無邦也, 內陰而外陽, 內柔而外剛, 內小人而外君子, 小人道長, 君子道消也.”

證이라고 하면서 脾約의 병리적 상태를 水雷屯卦(䷂)의 九五爻辭인 ‘屯其膏’³¹⁾를 차용하여 易學的 觀點으로 설명하였다.³²⁾

錢潢은 『傷寒論』 273조 太陰病 提綱 註釋에서 太陰病에서 나타나는 腹滿, 時腹自痛 등의 腹 관련 病증을 『周易·說卦傳』에 八卦를 인체 부위와 연관지어 말한 ‘乾爲首, 坤爲腹, 震爲足, 巽爲股, 坎爲耳, 離爲目, 艮爲手, 兌爲口.’³³⁾ 중 ‘坤爲腹’을 인용하여 설명하였다.³⁴⁾

錢潢은 『傷寒論』 281조 “少陰의 病證은 脈이 微細하고 다만 잠들려고 한다.”의 註釋에서 ‘但欲寐’ 증상을 『周易·繫辭上傳』에 나오는 “闔戶謂之坤.”³⁵⁾과 연결지어서 설명하였다. 즉 문을 열고 닫음에 있어서 닫는 것을 陰자로 이루어진 坤卦(䷁)에 비유했는데, 少陰病이 들었을 때 다만 잠만 자려고 하는 행위는 陰이 高요하여 닫는 성질과 유사하므로 『周易』의 “闔戶謂之坤.”을 인용하여 설명하였다. 錢潢은 少陰病 但欲寐 증상을 설명할 때 『周易』만 인용해서 설명한 것은 아니다. 『靈樞·營衛生會』, 『靈樞·衛氣行』, 『靈樞·大惑論』에 나오는 衛氣의 순행과 관

련한 문장을 인용하면서 낮에 陽分을 돌던 衛氣가 밤이 되어 陰分을 돌면 잠을 잔다고 하면서 衛氣의 運行으로도 但欲寐의 증상을 설명하기도 했다.³⁶⁾

錢潢은 『傷寒論』 373조 “설사하면서 물을 마시려고 하는 경우는 熱이 있기 때문이니 白頭翁湯으로 주로 치료한다.”의 辨誤에서 갈증의 有無로써 寒熱을 구분한다고 하면서 太陰病에 나타나는 自利不渴, 少陰病에 나타나는 自利而渴, 厥陰病에 나타나는 消渴의 양상을 구분하였고, 갈증의 양상을 분별하여 설명하는 과정에서 易學的인 觀點으로 설명하였다. 太陰은 純陰을 體로 삼으므로 不渴하고, 少陰은 坎水로써 卦로 따지게 되면 地雷復卦(䷗)이고, 陰中에 陽을 함유하고 있는 體로 龍火를 갈무리하고 있어서 陰盛하여 陽을 상부로 뿜박하게 되면 虛陽이 상부에 있어 갈증이 나타나고, 厥陰經에 이르면 陰이 지극한 상황에서 陽氣가 이미 자라나 卦로 따지면 地天泰卦(䷊)로 陰陽이 서로 반반적인 體가 되어, 陽氣가 또한 나오지만, 寒邪가 裏에 있기 때문에 배고파도 먹을 수가 없고, 먹으면 蝨蟲을 마하는 陰寒의 見證이 있고, 陰氣가 陽을 다그쳐 위로 거슬러서 마침내 氣가 올라가 心을 치고 心中이 아프면서 열이 있고 消渴이 나타난다고 하였다.³⁷⁾

31) 明文堂編輯部 校閱. 原本周易 乾. 서울. 明文堂. 1999. p.200. “九五, 屯其膏, 小貞吉, 大貞凶.”

32) 錢潢 著, 周憲賓·陳居偉 校注. 傷寒溯源集. 北京. 學苑出版社. 2009. pp.224-225. “太陽陽明者, 脾約是也. 太陽陽明者, 言病在太陽, 無論中風傷寒, 因誤治失治而傳入陽明, 或已傳陽明而太陽證猶未罷者. 若發汗若下若利小便, 亡津液而胃中乾燥, 大便難者, 遂爲脾約也. 脾約以胃中之津液言. 胃無津液, 脾氣無以轉輸, 故如藥約而不能舒展也. 『經脈別論』云: 飲入于胃, 遊溢精氣, 上輸於脾, 脾氣散精, 上歸於肺, 通調水道, 下輸膀胱, 水精四布, 五經並行, 『陽明脈解』云: 脾病不能爲胃行其津液, 四支不得稟水穀氣, 氣日以衰, 蓋水穀入胃, 脾主爲胃行其津液, 散精四布, 以滋養灌溉夫一身內外者也. 若汗吐下及利其小便, 竭其胃中之精液, 使脾氣無精氣可散, 絕上下之轉輸, 而爲屯膏之吝, 故謂之約.”

33) 明文堂編輯部 校閱. 原本周易 坤. 서울. 明文堂. 1999. p.1143. “乾爲首, 坤爲腹, 震爲足, 巽爲股, 坎爲耳, 離爲目, 艮爲手, 兌爲口.”

34) 錢潢 著, 周憲賓·陳居偉 校注. 傷寒溯源集. 北京. 學苑出版社. 2009. pp.312-313. “太陰之爲病, 腹滿而吐, 食不下, 自利益甚, 時腹自痛, 若下之, 必胃下結硬. 此總敘太陰之見症. 言太陰經受病, 必見腹滿而吐等證也, …中略…, 其經脈行于任脈之兩旁, 爲太陰之經, 故易曰坤爲腹, 蓋腹行之脈穴也. 腹行之經脈受邪, 故爲太陰病. 所謂邪入陰經, 則爲陰邪也.”

35) 明文堂編輯部 校閱. 原本周易 坤. 서울. 明文堂. 1999. p.1056. “是故闔戶謂之坤, 闔戶謂之乾, 一闔一闢謂之變.”

36) 錢潢 著, 周憲賓·陳居偉 校注. 傷寒溯源集. 北京. 學苑出版社. 2009. pp.334-335. “少陰之爲病, 脈微細, 但欲寐也, …中略…, 但欲寐者, 陰靜而闔也. 夫陽主動而陰主靜, 動則闔而靜則翕. 『易』曰: 闔戶謂之坤, 闔戶謂之乾. 此動靜闔闢之理也. 陰邪用事, 故自閉而但欲寐也. 按『靈樞』: 衛氣行于陽二十五度, 行于陰二十五度, 分爲晝夜, 氣至陽而起, 至陰而止. 是故平旦陰盡, 陽氣出于目而目張, 則氣上行于頭. 日入陽盡而陰受氣, 夜半而大會, 萬民皆臥, 命曰合陰. 又『靈樞·大惑論』曰: 夫衛氣者, 晝常行于陽, 夜行于陰, 故陽氣盡則臥, 陰氣盡則寤. 今但欲寐者, 陰邪盛而陽氣弱, 衛氣不能上出于陽故也. 又云衛氣留于陰, 不得行于陽, 留于陰則陰氣盛. 陰氣盛則陰驕滿, 不得入于陽, 則陽氣虛, 故目閉, 即此義也.”

37) 錢潢 著, 周憲賓·陳居偉 校注. 傷寒溯源集. 北京. 學苑出版社. 2009. pp.390-391. “下利欲飲水者, 以有熱故也, 白頭翁湯主之, …中略…, 【辨誤】…中略…, 因太陰以純陰爲體, 無虛假之見證, 此陰寒不渴之正體也. 云自利而渴者屬少陰, 下文即曰虛故引水自救, 小便色白者, 以下焦虛有寒, 不能制水. 故令色白. 此又因少陰爲坎水, 其卦爲復, 乃陰中含陽之體, 龍火藏焉, 故陰盛逼陽于上, 所以陰邪在下則自利, 虛陽在上則渴, 此陰寒反見之假證也. 其理隱微, 豈能智愚均曉. 仲景恐人之不喻也, 故但云引水自救而已, 下文仍證云, 以下焦虛有寒, 則知非有熱而渴, 乃渴之變體也. 至于厥陰一經,

錢潢은 『傷寒論』 392조 “傷寒에서 陰陽易의 病證은 그 사람의 몸이 무겁고 氣가 부족하여 숨이 약하며, 少腹이 안으로 긴장되어 팽팽해지거나 혹은 음부가 당기면서 경련이 일며, 열기가 가슴으로 치받고, 머리가 무거워서 들리고 하지 않으며 눈이 어지럽고, 무릎과 정강이가 당기는 경우에는 燒棍散으로 주로 치료한다.”의 註釋에서 陰陽易의 病證을 해석하는 중간 과정에 『周易·繫辭下傳』을 인용하여 男女二氣의 交合 과정을 설명하였고³⁸⁾, 男女가 交合한 후에 元氣가 공허해져서 餘邪가 精氣 가운데에 섞여 들어가고, 精隧에 주입되며, 經絡에 넘치고, 交接하는 虛한 틈을 타서 藏府와 筋骨과 脈絡과 俞穴 사이에 침투해 들어가면 正氣는 더욱 虛해지고, 邪氣는 더욱 盛해져 陰盛陽衰의 證을 이룬다고 하였다. 또한 陰陽易을 치료하는 燒棍散 方解에서도 속옷을 태워 만드는 燒棍散을 기복신양으로 치부하는 데에 반대하면서 그 이치를 설명하는 과정에 『周易·澤山咸卦(䷞)』의 象傳을 인용하여³⁹⁾ 男女二氣가 感應하여 서로 氣를 주고받음과 『周易·乾卦(䷀)·文言傳』의 ‘物從其類’, ‘同氣相求’ 등의 말을 인용하여⁴⁰⁾ 일종의 生殖器 질병인 陰陽易을 속옷을 이용하여 치료하는 원리를 설명하였다.⁴¹⁾

雖爲陰之極處，而陽氣已長，其卦爲泰，乃陰陽相半之體，陽氣且出。因寒邪在裏，故有飢不能食，食則吐衄之陰寒見證。而陰氣迫陽上逆，遂有氣上撞心，心中疼熱而消渴矣，此又渴之反體也。若此者，真假虛實，其辨甚微。”

38) 明文堂編輯部 校閱. 原本周易 坤. 서울, 明文堂. 1999. p.1099. “天地網緝，萬物化醇，男女構精，萬物化生.”

39) 明文堂編輯部 校閱. 原本周易 乾. 서울, 明文堂. 1999. p.545. “象曰咸，感也。柔上而剛下，二氣感應以相與，止而說，男下女。是以亨利貞取女吉也.”

40) 明文堂編輯部 校閱. 原本周易 乾. 서울, 明文堂. 1999. p.144. “九五曰，飛龍在天，利見大人，何謂也。子曰，同聲相應，同氣相求，水流濕，火就燥，雲從龍，風從虎，聖人作而萬物覩，本乎天者親上，本乎地者親下，則各從其類也.”

41) 錢潢 著, 周憲賓·陳居偉 校注. 傷寒溯源集. 北京, 學苑出版社. 2009. pp.400-401. “以愚意推之，蓋以二氣網緝，其構精之時，乃化醇之候也，二氣不雜，兩精融一，故能化生，所謂二五之精妙合而凝也。然男病易之于女，女病易之于男，其受病之人，並非氣血未復者，實爲注家之誤。但男女一交之後，自然元氣空虛，餘邪錯雜于精氣之中，走入精隧，溢入經絡，乘其交後虛隙之中，入而浸淫于藏府筋骨脈絡俞穴之間，則正氣因邪而益虛，邪氣因虛而益盛。故有此陰盛陽衰之諸證也，…中略…，或謂陰陽易之證，近于變幻，故用燒棍之法，亦近于厭禳。曰非也，有至理存焉。男女之交媾，『易』所謂二氣感

4) 方劑 설명에 나타난 易學的 觀點

錢潢은 大靑龍湯, 眞武湯, 大小靑龍湯의 方劑 효과 비교, 十棗湯, 附子瀉心湯, 大柴胡湯, 白虎湯 등 方劑 설명에 있어서 易學的 觀點으로 설명하였다. 錢潢은 『傷寒論』 38조 “太陽 中風에 脈이 浮緊하고 發熱하며 惡寒하고 몸에 통증이 있으며, 땀이 나오지 않고 煩燥한 경우에는 大靑龍湯으로 주로 치료한다. 만약에 脈이 微弱하고 땀이 나오며 惡風하는 경우에는 복용할 수가 없으니, 복용하면 厥逆하고 근육이 놀래고 肌肉에 쥐가 나니, 이것이 逆이 되니, 眞武湯으로 구제한다.”의 大靑龍湯 方解에서 靑龍이 木氣를 지녀서 그 행동이 감춰질 때에는 北方의 坎에 잠복되어 있다가 그 움직이게 되면 東方의 震에서 나오며, 靑龍湯이 春劑로써 寒邪에 抑鬱되었을 때 氣를 發散하여 땀이 나오게 하는 효능이 있지만, 汗出惡風하고 脈微弱할 때 쓰면 氣가 펼쳐진 상태에서 靑龍이 나아가 더욱 펼쳐지게 하는 형국이 되는데, 이를 重天乾卦(䷒) 上九爻辭인 ‘亢龍有悔’를 차용하여 설명하였다.⁴²⁾ 錢潢이 이와 같이 大靑龍湯 方劑를 설명함에 있어서 靑龍의 象을 坎卦(☵)와 震卦(☳)를 인용하여 그 動靜을 파악하고, 重天乾卦(䷒) 上九爻辭를 인용하여 그 부작용을 설명한 것은 大靑龍湯이라는 方劑의 전체적인 象을 잡는 데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錢潢은 『傷寒論』 38조의 眞武湯 方解에 있어서 易學的인 觀點을 가지고 眞武湯을 설명하였다. 眞은 先天의 순수하면서도 잡스럽지 않은 氣이고, 武는 乾金의 쓰임으로 陽氣가 動함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八卦로 따졌을 때 이 陽氣는 坎卦(☵)의 中爻가 되어서, 眞武湯의 전체적인 象을 水中金으로 잡고서

應以相與也。以未淨之邪，隨交合之情，精神魂魄，無不動搖，翕然而感，感而遂通，混入于少陰之裏，故以近隱處之棍襁，引出其陰中之邪。所謂物從其類，同氣相求之義也。”

42) 錢潢 著, 周憲賓·陳居偉 校注. 傷寒溯源集. 北京, 學苑出版社. 2009. pp.143-147. “其藏則伏於北方之坎，其動則出於東方之震，故曰靑龍。靑龍湯者，人身之春劑也。靑龍主令於春者，春即人身生和長養之氣也。蓋少陽木氣，喜於發散，若爲寒氣所持，則鬱而不達矣。必使陽氣升發，然後降而爲雨，雨猶人身之汗也，得汗則發泄而陽氣得伸，故以大靑龍爲行雨之神而發之，所謂木鬱則達之也。若汗出惡風而見微弱之脈，爲眞陽大虛之候，用之則爲亢龍而有悔矣，故曰不可服也。”

陽氣가 潛藏하는 象이라고 표현하였고, 潛龍이라고도 하였다. 脈이 微弱하고 汗出惡風할 때 大靑龍湯을 복용할 수가 없는데, 만약 복용하면 厥逆과 筋惕과 肉瞤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이와 같이 孤陽이 밖으로 飛越하고, 陰寒이 가운데에서 獨盛하여 龍이 연못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을 때 眞武湯을 써서 救逆한다고 하였다. 眞武는 北玄武로써 본래 거북이와 뱀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象으로, 錢潢은 坎卦(☵)의 卦象으로 이를 나타내었다. 즉 坎卦(☵)의 중앙에 있는 陽爻는 뱀을 표시하는 것이고, 坎卦(☵)의 중앙에 있는 陽爻를 上下로 둘러싸고 있는 陰爻는 거북이를 상징한다고 보았다. 眞武湯은 茯苓, 芍藥, 生薑, 白朮, 附子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茯苓은 淡滲하고 아래쪽으로 달려가 水源으로 導入케 하고, 芍藥은 酸味로 斂陰하며, 生薑과 白朮은 모두 足太陰에 들어가 中氣를 建立하고, 附子は 坎中の 陽을 급히 구하여 命門의 眞氣를 회복시켜 導龍歸窟케 한다고 하였다.⁴³⁾

錢潢은 『傷寒論』 38조 眞武湯 方解에 있어서 易學的인 관점을 가지고 眞武湯을 설명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傷寒論』 82조 眞武湯의 方劑 효과를 설명할 때 易學的인 관점으로 설명하였다. “太陽病에 發汗했으나, 풀리지 않고 여전히 發熱하며, 心下가 두근거리고, 머리가 어지럽고 몸이 쥐가 나는 것처럼 움직이며, 몸이 벌벌 떨려 땅에 넘어지려고 하는 경우

는 眞武湯으로 주로 치료한다.”의 주석에서 心下悸, 頭眩, 身瞤動, 振振欲擗地의 증상이 大靑龍湯을 誤服했을 때 나타나는 병증들과 차이가 없으므로 眞武湯으로 引火歸源하여 龍을 원래에 있던 深淵으로 잠기게 해야 파도가 잠잠해질 수 있다고 眞武湯의 方劑 효과를 설명할 때 易學的인 관점으로 설명하였다.⁴⁴⁾

錢潢은 『傷寒論』 40조 “傷寒에 表가 풀리지 않아 心下에 水氣가 있고, 헛구역질하며 發熱하고 기침을 하며, 혹 갈증이 있거나 혹 설사하거나 혹 목이 메이거나 혹 小便이 순조롭지 않고 少腹이 그득하거나 혹 숨을 헐떡이는 경우에는 小靑龍湯으로 주로 치료한다.”의 小靑龍湯 方解에서 小靑龍湯의 方劑 효과를 大靑龍湯과 비교할 때 易學的인 관점으로 설명했다. 小靑龍湯은 大靑龍湯의 變制로, ‘小’라고 일컫은 것은 억제해서 그 쓰임을 작게 한 것이라고 하면서 小靑龍湯이라는 方劑의 형세가 龍이 엎드리고, 자벌레가 몸을 굽혀 大靑龍湯처럼 龍이 날아오르는 형세와 같지 않다고 하였다.⁴⁵⁾

錢潢은 『傷寒論』 152조 “太陽 中風에 설사하며 구역질이 있고, 表邪가 풀린 경우에는 이에 攻下할 수가 있다. 그 사람이 축축하게 땀이 나오며 발작에 때가 있어서 머리가 아프며 心下가 막혀 단단하며 그득하고, 옆구리 아래까지 당기면서 아프며, 헛구역질하고 숨이 짧으며 땀이 나오고 惡寒하지 않는 경우에는 表는 풀렸지만 裏가 아직 조화롭지 않은

43) 錢潢 著, 周憲賓·陳居偉 校注. 傷寒溯源集. 北京. 學苑出版社. 2009. pp.143-150. “眞者, 先天純一不雜之氣也. 武者, 乾金之用, 陽氣之動也, 以乾金之堅剛不屈, 陽氣之發揚蹈厲而言也. 在八卦則爲坎中之爻, 一陽居於二陰之間, 乃先天乾中之陽. 丹家所謂水中金, 陽氣潛藏之象也. …中略…; 若脈微弱而汗出惡風者, 不可發也. 脈微弱則眞氣已虛, 汗出惡風則衛氣衰弱, 陽虛可知, 故少陰條下, 有脈微不可發汗之禁, 更誤服大靑龍湯, 而犯虛虛之戒, 使衛氣喪失, 眞陽散亡, 遂致有厥逆瞤惕之變, 此時孤陽飛越於外, 陰寒獨盛於中, 使龍不歸淵, 頃刻有喪亡之禍, 故非眞武不足以救之. 茯苓淡滲而下走, 導入水源也. 芍藥斂陰, 酸以收之也. 薑朮俱入足太陰, 所以建立中氣. 薑可以宣達陽氣, 朮可以培土制水, 附子所以急救坎中之陽, 恢復命門眞氣, 招集散亡之陽, 使陽氣仍歸下焦, 則天根溫煖, 龍方就之以居, 故能導龍歸窟. 龍本坎中之陽, 北方之位, 龍之所生, 龍之所潛, 乃其故處, 實其安宅也. 武之與龍, 雖有陰陽之分, 本爲一體, 所謂龜蛇同氣也. …中略…; 今人於眞武像前, 設龜蛇之形, 不置之於左右, 而必以蛇加龜背者, 所以象夫坎之體也. 蛇者, 坎中一畫之陽爻也. 龜者, 上下二陰之四段也.”

44) 錢潢 著, 周憲賓·陳居偉 校注. 傷寒溯源集. 北京. 學苑出版社. 2009. pp.47-48. “太陽病, 發汗, 汗出不解, 其人仍發熱, 心下悸, 頭眩身瞤動, 振振欲擗地者, 眞武湯主之. …中略…; 因衛分之眞陽喪亡於外, 故命門之龍火飛越於上, 與誤服大靑龍之變無異矣, 焉得不以眞武湯收其散失之陽, 導使歸源, 令龍潛海底, 方得波恬浪息也, 故以眞武湯主之.”

45) 錢潢 著, 周憲賓·陳居偉 校注. 傷寒溯源集. 北京. 學苑出版社. 2009. pp.161-163. “傷寒表不解, 心下有水氣, 乾嘔發熱而欬, 或渴或利, 或噎, 或小便不利, 少腹滿, 或喘者, 小靑龍湯主之. …中略…; 小靑龍, 即大靑龍之變制也. 謂之小者, 控制而小用之也. 蓋龍蟠蟄屈, 非若升騰飛越之勢之大也. 夫前以天地鬱蒸, 非風狂雨驟, 雷雨滿盈, 不足以散鬱蒸之熱氣. 此則水滯寒凝, 非雨潤雲蒸, 水泉流動, 豈能解互結之寒邪. 是以大靑龍爲辛涼發汗之劑, 故用麻黃全湯, 兼桂枝之半, 又倍增麻黃而加石膏也. 小靑龍乃辛溫發散, 斂逆之藥, 故用桂枝全湯, 去薑朮而兼麻黃之半. 又加乾薑細辛者, 一以助麻黃桂枝之辛溫發散.”

것이니, 十棗湯으로 주로 치료한다.”의 十棗湯 方解에서 『周易·地水師卦(䷆)·象傳』⁴⁶⁾을 부분적으로 인용하여 이로써 천하에 毒을 주어도 백성들이 따른다고 十棗湯의 효과를 易學的 觀點으로 설명했다.⁴⁷⁾

하였다.⁴⁹⁾

錢潢은 『傷寒論』 165조 “傷寒에 發熱하고 땀이 나왔는데도 풀리지 않아 心下가 막혀 단단하고 구토하며 실사하는 경우에는 大柴胡湯으로 주로 치료한

Table 2. Prescriptions with *I-Ching* perspective explanation in *Shanghansuyuanji*

方劑	大青龍湯	眞武湯	十棗湯	附子瀉心湯	大柴胡湯	白虎湯
藥物 구성	麻黃, 桂枝, 甘草, 杏仁, 生薑, 大棗, 石膏	茯苓, 芍藥, 生薑, 白朮, 附子	甘遂, 大戟, 芫花, 大棗	大黃, 黃連, 黃芩, 附子	柴胡, 黃芩, 芍藥, 半夏, 生薑, 枳實, 大棗	知母, 石膏, 甘草, 粳米
主治	升發陽氣	引火歸源	逐水泄濕	扶眞陽助衛氣	雙解表裏	清解熱邪
易學的 觀點	升騰飛越	潛龍, 導龍歸窟	毒天下而民從之	傾否之功	成先否後喜之功	西方兌金之神

錢潢은 『傷寒論』 155조 “心下가 막히면서 다시 惡寒하고 땀이 나는 경우에는 附子瀉心湯으로 주로 치료한다.”의 註釋에서 心下痞의 치료효과를 易學的 觀點으로 설명하였다. 155조에서 心下痞 증상에 惡寒과 汗出의 증상이 나타난 것을 命門眞陽의 虛衰로 보았고, 衛氣 생산의 動力인 下焦眞陽이 虛함에 따라 惡寒과 汗出 증상이 나와 熱痞를 치료할 수 있는 大黃黃連瀉心湯에 清熱을 돕는 黃芩을 더하고, 扶眞陽할 수 있는 附子를 더하여 寒熱藥을 함께 베풀어서 陰陽의 患을 쉬게 하고, 傾否⁴⁸⁾의 功을 세운다고

다.”의 註釋에서 傷寒發熱에 發汗의 치료법을 사용했으나 풀리지 않고 心下痞鞭이 되고, 嘔吐하면서 실사를 하는 경우에는 大柴胡湯으로 다스리는데, 大柴胡湯을 써서 表裏의 邪氣를 雙解하여 치료됨을 天地否卦(䷋)의 上九爻辭인 ‘先否後喜’⁵⁰⁾로서 표현하였다.⁵¹⁾

錢潢은 『傷寒論』 176조 “傷寒에 脈이 浮滑하니,

p.314. “上九, 傾否, 先否後喜.”

46) 明文堂編輯部 校閱. 原本周易 乾. 서울. 明文堂. 1999. pp.242-243. “象曰師衆也, 眞正也, 能以衆正, 可以王矣. 剛中而應, 行險而順, 以此毒天下, 而民從之, 吉又何咎矣.”

47) 錢潢 著, 周憲賓·陳居偉 校注. 傷寒溯源集. 北京. 學苑出版社. 2009. pp.133-135. “太陽中風, 下利嘔逆, 表解者, 乃可攻之. 其人發熱汗出, 發作有時, 頭痛心下痞鞭, 滿引脇下痛, 乾嘔短氣, 汗出不惡寒者, 此表解裏未和也, 十棗湯主之. …中略…, 十棗湯驅逐裏邪, 使水氣自大小便而泄, 乃『內經』所謂潔淨府, 去陳莖法也. 五飲之中, 水濕之流於腸胃者爲痰飲, 令人腹鳴吐水, 胸脇支滿, 或作泄瀉. 芫花大戟甘遂之性, 逐水泄濕, 能直達水飲窠囊隱僻之處, 可徐徐用之, 取效甚捷. 余參考方書, 如控涎丹小胃丹舟車神祐丸等法, 雖後賢變通之法, 然皆本之於此, 夫芫花辛溫而有小毒, 能治水飲痰滯脇下痛. 大戟苦寒而有小毒, 能泄臟腑之水濕. 甘遂苦寒有毒, 而能行經隧之水濕. 蓋因三者性未馴良, 氣質峻悍, 用之可洩眞氣, 故以大棗之甘和滯緩, 以柔其性氣, 喪其鋒銳, 然亦強者不過服一錢匕, 羸者減至半錢而已. 又以肥棗十枚, 煮汁八合和之, 若服之而下少病未除者, 又必至明日, 方可更服. 仲景制方之妙, 可謂臨深履薄, 惴惴焉矣. …中略…, 『易』曰, 以此毒天下而民從之, 其斯之謂歟.”

48) 明文堂編輯部 校閱. 原本周易 乾. 서울. 明文堂. 1999.

49) 錢潢 著, 周憲賓·陳居偉 校注. 傷寒溯源集. 北京. 學苑出版社. 2009. pp.120-122. “心下痞而復惡寒汗出者, 附子瀉心湯主之. …中略…, 夫以心下痞而按之濡, 其脈關上浮者, 即前所謂緊反入裏, 傷寒鬱熱之邪, 誤入而爲痞, 原非大實, 而復見惡寒汗出者, 知其命門眞陽已虛, 以致衛氣不密, 故玄府不得緊閉而汗出, 陽虛不任外氣而惡寒也. 人但知衛氣行於皮膚, 而不知乃下焦之眞陽, 蒸藹氣而達皮膚, 乃爲衛氣. 所以相火居於兩腎之間而屬少陰, 衛氣居於肌表而屬太陽, 爲一根一葉, 故足太陽膀胱與足少陰腎經, 相爲表裏而成一合也. 以熱邪者於心下, 則仍以大黃黃連瀉之, 加附子以扶眞陽, 助其蒸騰之衛氣, 則外衛固密矣. 因既有附子之加, 並入黃芩以爲徹熱之助, 而寒熱並施, 各司其治, 而陰陽之患息, 傾痞之功又立矣.”

50) 明文堂編輯部 校閱. 原本周易 乾. 서울. 明文堂. 1999. p.314. “上九, 傾否, 先否後喜.”

51) 錢潢 著, 周憲賓·陳居偉 校注. 傷寒溯源集. 北京. 學苑出版社. 2009. p.128. “傷寒發熱, 汗出不解, 心下痞鞭, 嘔吐而下利者, 大柴胡湯主之. …中略…, 然其未盡入裏之邪, 猶在半表, 若但下之, 恐其邪亦併陷入, 故以小柴胡湯入承氣之半, 名之曰大柴胡湯以雙解之. 庶幾外邪可解, 裏邪得泄, 而成先否後喜之功也. 小柴胡去人參甘草者, 邪在裏也. 加芍藥者, 汗後下利, 斂陰氣也. 下利而用大黃者, 邪實則通因通用也. 此與結胸條中之大柴胡互相發明, 可見痞症之邪從外入者, 與熱入之結胸, 名雖異而實同, 其感受與治法, 不甚相懸也.”

이것은 表에 열이 있고, 裏에 寒이 있는 것이니, 白虎湯으로 주로 치료한다.”의 白虎湯 方解에서 白虎湯을 易學的인 관점으로 설명하였다. 白虎의 白은 西方의 正色이고, 虎는 西方 秋金의 陰의인 성질을 지닌 짐승이므로, 白虎는 西方 兌金의 神이 되어, 天地의 맑고도 엄숙한 수렴하는 氣라고 하였다. 따라서 한여름에 酷暑가 찌는 듯할 때 秋氣를 두어서 수렴하고, 邪氣가 속에 있어서 胃熱이 鬱蒸하는 경우에 白虎湯으로 淸解한다고 하면서 白虎湯을 暑病을 치료하는 方劑로 여겼다. 石膏는 辛寒하여 淸肅하므로 君藥으로 삼고, 知母는 辛苦寒하여 肺胃經에 들어가서 瀉腎火하면서 滋化源하니 佐藥으로 삼고, 甘草는 완화시키는 작용을 하고, 粳米는 和中하고 保胃氣한다고 했다.⁵²⁾

5) 藥性 설명에 나타난 易學的 觀點

錢潢은 桂枝, 茯苓, 附子, 鉛丹, 肉桂 등의 藥性을 易學的 觀點으로 설명했다. 錢潢은 『傷寒論』 12조 “太陽 中風에 陽은 浮하고 陰은 弱하니, 陽이 浮한 경우는 熱이 저절로 發하는 것이고, 陰이 弱한 경우는 汗이 저절로 나오는 것이다. 오싹오싹 惡寒하고 선뜩선뜩 惡風하며, 화끈화끈 發熱하고 코가 막혀 멍멍하고 헛구역질하는 경우에는 桂枝湯으로 주로 치료한다.”의 桂枝湯 方解에서 桂枝의 藥性을 易學的 觀點으로 설명하였다. 桂枝의 원나무인 계수나무는 陽木이고, 東南쪽에서 성장하여 東南震巽의 發生의 全氣를 얻었으므로 命門을 補助하여 中州를 生發

할 수 있게 하고, 下焦의 氣化하는 功을 더하여 百脈을 宣通시켜 氣血의 요약이 되고, 그 가지인 桂枝는 陽氣를 얻어서 울체된 風邪를 풀어낼 수가 있다고 하였다.⁵³⁾

錢潢은 『傷寒論』 69조의 “發汗시키고, 攻下시켰는데, 병이 풀리지 않고 煩躁하는 경우에 茯苓四逆湯으로 主治한다.”의 茯苓四逆湯 方解에서 茯苓의 藥性은 淡滲하여 降下하고, 無形의 火를 이끌어 坎水의 근원으로 끌어들이므로 君藥으로 삼고, 附子는 溫經하고, 下焦로 直達하며, 龍火를 이끌어 歸源한다고 설명했는데⁵⁴⁾, 이는 茯苓과 附子라는 茯苓四逆湯의 方劑를 구성하고 있는 약제의 효능을 설명함에 있어서 易學的인 관점을 차용하여 설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錢潢은 『傷寒論』 107조 “傷寒에 걸린 지 8~9일에 瀉下하여 가슴이 그득하며 煩驚하고, 小便이 순조롭지 않으며, 헛소리를 하고, 온몸이 다 무거우며, 옆으로 돌릴 수 없는 경우는 柴胡加龍骨牡蠣湯으로 주로 치료한다.”의 柴胡加龍骨牡蠣湯 方解에서 鉛丹의 藥性을 설명할 때에 易學的 觀點으로 설명하였다. 鉛丹은 金의 성질을 지니고 있어서 制木하고, 무거워서 鎮驚시키며, 北方의 흑색에 근본했지만, 제련을 거치면 변화하여 南方의 적색이 되니, 이것이 곧 坎離가 한 번 사귀어 水火가 既濟(☵☲)하는 것으로 이것으로써 肝木의 邪氣를 다스린다고 하였다.⁵⁵⁾

52) 錢潢 著, 周憲賓·陳居偉 校注. 傷寒溯源集. 北京. 學苑出版社. 2009. pp.172-173. “傷寒脈浮滑, 此表有熱, 裏有寒, 白虎湯主之. …中略…; 白者, 西方之正色. 虎者, 西方秋金之陰獸也, 故爲西方兌金之神, 乃天地淸肅之收氣也, 然非必有是物也. 以其爲西方淸肅寒涼之氣, 故以爲喻也. 夫陽氣發泄之極, 至盛夏而酷暑炎蒸, 其熱淫之氣, 靡所止極, 故有秋氣以收之, 而金風薦爽, 炎暑方收, 白帝司權, 天地以肅, 人身之邪氣, 鬱蒸於肌表而不得發泄者, 以桂枝麻黃湯汗解之. 至於風寒鬱熱之甚, 煩躁不得汗泄者, 以大青龍湯涼解之. 至邪氣在裏而胃熱鬱蒸者, 方以白虎湯淸解之也, 然非但爲此而設也, 仲景實爲夏至以後之暑病立一大柱也. …中略…; 石膏辛寒, 辛爲金之味, 寒乃金之性也, 寒涼淸肅, 故以爲君. 知母辛苦性寒, 入足陽明手太陰, 瀉腎火而滋化源, 故以爲佐. 甘草者, 緩其性也. 粳米者, 和中保胃氣也. 謂之白虎者, 猶虎嘯風生, 寒威凜冽, 使熱邪冰釋也.”

53) 錢潢 著, 周憲賓·陳居偉 校注. 傷寒溯源集. 北京. 學苑出版社. 2009. pp.19-22. “太陽中風, 陽浮而陰弱, 陽浮者熱自發, 陰弱者汗自出, 當惡寒, 淅淅惡風, 翁翁發熱, 鼻鳴乾嘔者, 桂枝湯主之. …中略…; 桂, 陽木也, 生長於東南, 蓋得東南震巽發生之全氣者, 故能補助命門, 生發中州, 益下焦氣化之功, 宣通百脈, 而爲氣血之要藥, 其枝則得陽氣而暢茂條達者也. 夫木性之陽春生發, 爲天地發散其三冬伏藏之鬱結者也.”

54) 錢潢 著, 周憲賓·陳居偉 校注. 傷寒溯源集. 北京. 學苑出版社. 2009. p.91. “發汗若下之, 病仍不解煩躁者, 茯苓四逆湯主之. …中略…; 茯苓虛無淡滲而降下, 導無形之火以入坎水之源, 故以爲君. 人參補汗下之虛, 而益胃中之津液, 乾薑辛熱, 守中而暖胃, 附子溫經, 直達下焦, 導龍火以歸源也.”

55) 錢潢 著, 周憲賓·陳居偉 校注. 傷寒溯源集. 北京. 學苑出版社. 2009. pp.290-292. “傷寒八九日, 下之, 胸滿煩驚, 小便不利, 識語, 一身盡重, 不可轉側者, 柴胡加龍骨牡蠣湯主之. …中略…; 至于鉛丹一味, 皆以爲鎮重心藏之驚, 余細閱

錢潢은 『傷寒論』 117조 “燒鍼으로 땀을 내되 침을 놓은 곳이 寒邪를 받아 核이 일어나면서 붉은 경우는 반드시 奔豚이 발생한다. 氣가 少腹으로부터 위로 心에 상충한 경우에는 그 核 위에 땀을 한 장 뜨고 桂枝加桂湯을 주니, 桂枝湯에 肉桂 2냥을 다시 더한 것이다.”의 註釋에서 奔豚의 豚이 돼지로, 돼지는 12地支로 따지면 亥이고, 純陰이며, 奔豚의 病機가 腎藏陰寒의 氣가 상부를 공격하는 것이라고 하고, 溫經散寒하기 위해 桂枝加桂湯을 쓰는데, 桂枝加桂湯에서 肉桂의 역할이 地中來復의 一陽, 즉 腎中之 元陽을 補益하여 치료하는 것이라고 하면서⁵⁶⁾ ‘來復’이라는 卦辭를 차용하여 易學的 觀點으로 설명하였다.

錢潢은 『傷寒論』 317조 “少陰病에 맑은 물과 소화되지 않은 곡식을 설사하고, 裏는 차고 밖은 뜨거우며, 손발이 厥逆하고 脈이 微하여 끊어지려고 하며, 몸이 도리어 惡寒하지 않고, 그 사람의 얼굴색이 붉으며, 혹 배가 아프거나 혹 헛구역질하거나 혹 목구멍이 아프거나 혹 설사가 그치고 脈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通脈四逆湯으로 주로 치료하니, 그 脈이 곧 나오는 경우에는 낫는다.”의 通脈四逆湯 方解 중 面赤에 葱白을 9줄기 더하여 쓰는 加減法에서 附子의 藥性を 설명할 때에 易學的 觀點으로 설명을 하였다. 附子의 藥성이 溫하고, 坎中之 眞陽을 大補하며, 引火歸源하여 導龍歸海한다고 하였다.⁵⁷⁾

6) 欲解時 설명에 나타난 易學的 觀點

錢潢은 欲解時 설명에 있어서 易學的 觀點으로 설명했다. 錢潢은 『傷寒論』 9조 “太陽病이 나오려는 때는 巳時에서 未時의 사이이다.”의 註釋에서 經氣가 왕성해지는 시기를 기다려 太陽病이 풀릴 수 있고, 太陽은 盛陽으로, 巳午에 왕성한데, 巳는 純陽이 되어 乾卦가 주관한다고 하였으며, 午가 비록 一陰이 처음 생겨나지만, 陽氣가 왕성하여 지극한 때라고 하였다.⁵⁸⁾ 巳는 12辟卦로 따지면 4월이고 重天乾卦(☰)이며, 午는 12辟卦로 따지면 5월이고 一陰이 始生하는 天風姤卦(☴)인데, 12時辰으로 따져도 그 陰陽盛衰의 흐름은 비슷하므로, 午時를 一陰이 始生하는 天風姤卦로 생각해 볼 수 있고, 巳時를 一陰이 아직 始生하기 전에 陽이 極盛한 重天乾卦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錢潢은 193조 “陽明病이 풀리려고 할 때는 申時에서 戌時 사이이다.”의 註釋에서 陽明을 兩陽合明이라고 설명하고, 陽明病이 낫는 시기는 申時에서 戌時 사이로, 戌時は 陰盛剝陽의 때라고 하였다.⁵⁹⁾

論中, 並無心臟受病之文. 若必以驚爲心病, 則仲景胡不以丹砂鎮之, 而偏以鉛丹爲重. 蓋心固主驚, 而肝臟亦主驚駭. 是故, 鉛丹之爲物也, 非惟金能制木, 重可鎮驚, 況鉛本北方之黑, 因製煉之功, 化而爲南方之赤, 則坎離一交, 水火既濟, 以之治肝木之邪, 有三家相見之奇, 五行攢簇之妙矣.”

56) 錢潢 著, 周憲賓·陳居偉 校注. 傷寒溯源集. 北京, 學苑出版社. 2009. pp.41-43. “燒鍼令其汗, 鍼處被寒, 核起而赤者, 必發奔豚. 氣從少腹上衝心者, 灸其核上一壯, 與桂枝加桂湯, 更加桂二兩. …中略…; 蓋奔豚者, 腎藏陰寒之氣上攻也. 豚本黑色, 故屬北方亥水, 戌則一陽未剝, 子巳一陽初生. 唯亥純陰, 故以豕喻之也. 豕性遲鈍, 駭怒則奔突, 腎肝之陰氣上逆, 有類奔豚, 亦象形取義也. 足少陰腎經之脈穴, 自橫骨大赫氣穴四滿皆在任脈關元氣海之兩傍. 足厥陰肝經之脈穴, 循陰股, 入毛中, 過陰器, 抵小腹. 是以奔豚之氣, 從少腹而上逆衝心, 即如厥陰之爲病, 赤氣上撞心也. 治之唯有溫經散寒而已, 故即於核上各灸一壯, 以驅其入處之寒邪. 又即於解肌正治劑中, 加桂以溫散陰經之寒邪, 乃爲的治. 註皆謂桂伐腎邪, 然桂非伐腎邪也, 命門之火氣衰微, 則寒邪爲患, 補益下焦之眞火, 即益火之源以消陰翳也. 桂亦非能伐肝也, 下焦之陽氣衰弱, 則木鬱不達. 地中之陽氣上騰, 則草本暢茂. 人身腎中之元陽, 即地中來復之一陽也. 其上騰之陽氣, 即人身三焦之氣化也. 三焦本於腎中之陽, 猶天地生化萬物之陽氣, 本於黃鍾初動, 一點來復之陽也. 肝乃含生於土中, 勾萌未達之木也, 故猶屬厥陰. 厥陰者, 陰極陽生之處也. 膽即透地條達之木, 故爲少陽. 少陽者, 初生方長之陽也. 蓋天地非陽氣, 則陰寒之鬱結不得發散. 草木非陽氣, 則勾萌之生長不能條達. 明乎此, 則用桂之義, 無不盡徹矣.”

57) 錢潢 著, 周憲賓·陳居偉 校注. 傷寒溯源集. 北京, 學苑出版社. 2009. pp.348-349. “少陰病, 下利清穀, 裏寒外熱, 手足厥逆, 脈微欲絕, 身反不惡寒, 其人面赤色, 或腹痛, 或乾嘔, 或咽痛, 或利止脈不出者, 通脈四逆湯主之, 其脈即出者愈. …中略…; 面色赤者, 加葱九莖. 面色之赤, 乃陰盛格陽, 虛陽上泛. 附子之溫, 能直達命門, 大補坎中之眞陽, 自能引火歸源, 導龍歸海, 何必葱白. 其所以用葱白者, 蓋爲陽氣不得流通, 下利脈微, 至厥逆無脈而設也. 夫脈者, 氣血流行之發現處也. 陰血非陽氣不行, 寒邪固閉, 陽氣鬱伏, 故以葱白通行陽氣, 助薑附溫經復脈之功耳. 然葱之功力, 豈能導火歸根, 而能治面色之赤哉. 吾不信也.”

58) 錢潢 著, 周憲賓·陳居偉 校注. 傷寒溯源集. 北京, 學苑出版社. 2009. p.18. “太陽病欲解時, 從巳至未上. 經云: 邪之所湊, 其氣必虛. 邪既入太陽之經, 雖或氣衰欲解, 然經氣已虛, 無以自振, 必待經氣旺時, 方能去其邪. 夫太陽者, 盛陽也, 旺於巳午. 巳爲純陽, 乾卦主之. 午雖一陰初生, 然 陽氣旺極之時也.”

錢潢이 戌時를 陰盛하고 陽을 박탈하는 때라고 한 것은 『周易』의 山地剝卦(䷖)를 차용하여 설명한 것이다. 山地剝卦(䷖)는 陰盛하여 남아 있는 陽을 剝奪 하려는 때인데, 이때를 하루의 시간으로 나타내면 陰盛하여 陽氣의 勢가 어느 정도 잦아든 때이므로 이를 陽明病 欲解時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陽明病이 陰盛한 때에 그 병이 잦아들면서 나올 가능성이 있음을 易學的 觀點을 인용하여 설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錢潢은 『傷寒論』 272조 “少陽病이 나오려고 하는 때는 寅時에서 辰時 사이이다.”의 註釋에서 少陽을 草木을 發生시킬 때의 初陽이라고 하면서 少陽病이 왜 寅時에서 辰時 사이에 풀릴 수 있는지를 易學的 觀點으로 설명하였다. 錢潢은 陽氣의 生長 過程을 설명함으로써 이를 풀어내었고, 陽氣가 一陽에서 二陽, 二陽에서 三陽으로 점차 자라남을 地雷復卦(䷗)에서 地天泰卦(䷊)에 이르기까지 陽氣가 하나씩 늘어나는 것으로써 설명할 때에 『周易』의 卦로 형상화하여 설명하였다.⁶⁰⁾

錢潢은 『傷寒論』 275조 “太陰病이 풀어지려고 할 때는 亥時에서 丑時 사이이다.”의 註釋에서 太陰病이 낫는 시간대를 설명할 때에 易學的 觀點으로 설명하였다. 太陰은 陰氣의 純全함이지만, 陰氣의 생성은 盛陽 가운데에서 생겨 一陰이 午에서 생긴다

고 했다. 이는 12辟卦로 따지면 5월 天風姤卦(䷫)에 해당한다. 5월에 一陰이 시생하고, 陰氣가 점점 자라서 10월이 되면 전체가 陰爻로만 구성된 坤卦(䷁)가 배속되는데, 錢潢은 이때를 陰氣가 純하다고 하였다. 子時는 陽氣가 막 생기는 때이지만, 여전히 陰氣가 극성한 때라고 하였고, 丑時는 陽氣가 이미 늘어나 陰氣만 왕성한 때는 아니라고 했다. 따라서 太陰의 왕성한 氣가 이때에 모여 太陰病의 邪氣가 저절로 풀린다고 하였다.⁶¹⁾ 이는 錢潢이 太陰病이 풀리는 때를 易學的 觀點으로 설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錢潢은 『傷寒論』 291조 “少陰病이 나오려고 할 때는 子時에서 寅時 사이이다.”의 註釋에서 少陰病이 낫는 시간대를 설명할 때에 易學的 觀點으로 설명하였다. 少陰은 一陽이 처음 생기는 곳으로 坎中의 陽이라고 했는데, 이는 少陰病 提綱 조문에서 少陰을 陰中含陽이라고 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말이다. 子時에 陽氣가 初生하고, 丑時에 一陽이 二陽이 되고, 寅時에 三陽이 되어 陽氣가 왕성해지므로 이 시간대에 少陰病이 낫는다고 하였다.⁶²⁾

錢潢은 『傷寒論』 328조 “厥陰病이 나오려고 하는 때는 丑時에서 卯時 사이이다.”의 註釋에서 厥陰病이 낫는 시간대를 설명할 때에 易學的 觀點으로 설명하였다. 厥陰을 土 가운데에 生氣를 머금었으나, 아직 땅 밖으로 뚫고 나오지 않은 木으로 보았다. 子時에 陽氣가 初生하고, 丑時에 一陽이 二陽이 되고, 寅時에 三陽이 되어 陽氣가 왕성해지므로 이 시간대에 厥陰病이 낫는다고 하였다.⁶³⁾

59) 錢潢 著, 周憲賓·陳居偉 校注. 傷寒溯源集. 北京. 學苑出版社. 2009. pp.212-213. “陽明病, 欲解時, 從申至戌上. 此 槩言陽明病欲解之愈時也. 陽明者, 兩陽合明也. …中略… 仲景以從申至戌爲陽明之旺時者, 是不以經脈言, 而以陽氣之 生旺言也. 夫寅卯爲陽氣初出而發生, 故爲少陽, 巳午爲陽氣 盛長而暢達, 故爲太陽, 至申酉而陰已長成, 收氣雖至, 正陽 極之時. 如初秋之收氣已至, 而炎暑未除, 熱氣猶盛, 此正太 少兩陽之所歸, 故胃雖六月之未土, 而太陽又兼謂之陽明燥金 也. 至戌而爲陰盛剝陽之時, 一日之氣亦同, 故其氣不能更旺 于戌, 故曰戌上.”

60) 錢潢 著, 周憲賓·陳居偉 校注. 傷寒溯源集. 北京. 學苑出版社. 2009. pp.280-281. “少陽病, 欲解時, 從寅至辰上. 少 陽者, 發生草木之初陽也. 自一陽來復于子, 陽氣萌於黃泉, 木氣即含生于少陰之中, 至丑而爲二陽, 至寅而三陽爲泰, 陽 氣將出. 至卯則其氣上升于空際而爲風, 陽氣附于草木, 木得 陽氣而生長. 在人則陽氣藏于兩腎之中, 所謂命門先天相火 也. 其陽氣流行于上中下者曰三焦, 其成形而生長條達者曰 胆, 其氣旺于寅卯. 至此而經氣充盈, 正可勝邪, 故爲病之欲 解時也. 至辰土而其氣已化, 陽氣大旺, 將成太陽, 則陽不爲 少矣, 故曰自寅至辰上.”

61) 錢潢 著, 周憲賓·陳居偉 校注. 傷寒溯源集. 北京. 學苑出版社. 2009. p.320. “太陰病, 欲解時, 從亥至丑上. 太陰者, 陰氣之純全也. 先天卦體, 陰氣生于盛陽之中, 故一陰生于午. 至亥而爲十月之候, 卦體屬坤, 陰氣方純, 至子而黃鍾初動, 陽氣雖萌, 正陰氣盛極之時, 故太陰之旺氣鍾于此, 氣旺則邪 自解矣. 至丑而陽氣已增, 非陰氣獨旺之時, 因丑之上半, 陰 氣尚盛, 故曰至丑上.”

62) 錢潢 著, 周憲賓·陳居偉 校注. 傷寒溯源集. 北京. 學苑出版社. 2009. pp.335-336. “少陰病, 欲解時, 從子至寅上. 少 陰爲一陽初生之處, 坎中之陽也. 初陽之孕育, 必假少陰之體 以爲之胞胎. 人身之眞陽, 必賴兩腎之寒水以爲之閉藏, 則癸 盡甲出, 貞下元生矣. 故少陰之于子, 太極元氣, 涵三爲一而 陽氣初生. 丑爲二陽, 則陽氣方長之候. 寒邪值此, 陽回而自 解矣. 至寅則陽氣上達, 欲出胞胎而將爲少陽, 正陽氣生旺之 地, 故曰從子至寅上.”

Ⅲ. 考察

『傷寒溯源集』에서 錢潢은 周永年の 「陰陽發病六經統論」을 凡例 바로 뒤에 두어 『周易』과 『傷寒論』의 상관성을 논하였고, 말로 다할 수 없는 이치를 象으로 표현하듯이 仲景도 法으로써 證을 다하지 못하기에 寒熱으로써 陰陽을 구분하여 辨證으로써 法을 다하고자 한다고 하였고, 仲景의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易에 심취한 사람만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傷寒論』의 이해는 『周易』의 이해를 전제로 함을 밝혔다. 또한 “仲景深知消息, 故其立方用意.”, “孫眞人云, 不知太易, 不足以言醫.”라고 하면서 『周易』의 陰陽變化에 통달함이 『傷寒論』 이해를 위해서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錢潢은 『傷寒論』의 이해는 『周易』의 이해를 전제로 함을 역설하면서 三陰三陽, 인체의 生理病理, 方劑, 藥性, 欲解時 등 여러 방면에 걸쳐서 『周易』의 卦象, 爻辭 등과 연관지어 易學的 觀點으로 설명하였다.

첫째 錢潢은 三陰三陽 중 少陽을 草木을 發生시키는 初陽으로 보아 이를 雷天大壯卦(䷗)로 표상화하였고, 少陽과 表裏를 이루는 厥陰을 至陰, 兩陰交盡, 陰極陽回處로 보아 地天泰卦(䷊)로 표상화했으며, 太陰을 盛陰으로 보아 靜順의 體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健運의 用을 두어 艮土라고 하였고, 太陰과 表裏를 이루는 陽明을 坤土라고 하였으며, 少陰을 陰中含陽이라고 보아 地雷復卦(䷗)로 표상화했으나, 少陰과 表裏를 이루는 太陽은 盛陽이라고 하면서도 이를 따로 卦象으로 표상화하지는 않아 일률적이지 않다는 면에서 한계를 드러내었다.

錢潢은 脾를 艮土라고 하고 胃를 坤土라고 하여 구별했는데, 坤은 文王八卦方位圖⁶⁴⁾로 따지면 西南쪽에 위치하고, 艮은 北東쪽에 위치하며, 坤은 『周

易·說卦傳』에서 “坤也者, 地也, 萬物皆致養焉, 故曰致役乎坤.”⁶⁵⁾이라고 하여 萬物을 기르는 속성을 강조하였고, 艮은 『周易·說卦傳』에서 “艮, 東北之卦也, 萬物之所成終而所成始也. 故曰成言乎艮.”⁶⁶⁾이라고 하여 始終을 주관한다고 하였다. 錢潢이 太陰을 艮土라고 八卦 중에 하나와 연관 지은 것은 脾가 五臟에 속하여 비록 그 體가 陰이기는 하지만, 그 本體가 陰爻로만 구성된 坤土처럼 완전히 무른 흙이 아니라, 陽氣를 포함하고 있어 精液을 운행하고 精微를 운행시키는 등 脾主運化의 기능을 발휘하므로 그 用的인 측면을 생각하여 艮土와 연관지어 설명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錢潢이 厥陰을 陰極陽回라고 한 것은 極則反의 원리이지만, 厥陰을 64괘로 표현했을 때 地天泰卦(䷊)라고 한 것은 厥熱勝復證과도 관련이 있다. 錢潢은 凡例에서도 “厥陰 한 經은 陰氣가 이미 다하게 되어 오히려 天地의 陽氣가 이미 자라나고, 또 땅위로 나오려고 하는 것과 같으므로 陰陽이 서로 반반씩인 經이 되어 厥과 熱이 번갈아 나타나 篇을 나누기가 어렵다.”⁶⁷⁾고 하였다. 『傷寒論』 厥陰病 조문을 살펴보면 331조⁶⁸⁾, 332조⁶⁹⁾, 334조⁷⁰⁾, 336조⁷¹⁾,

63) 錢潢 著, 周憲賓·陳居偉 校注. 傷寒溯源集. 北京. 學苑出版社. 2009. p.371. “厥陰病, 欲解時, 從丑至卯上. 厥陰肝臟, 乃含生土中, 尚未透地之木. 自子而一陽初生, 木之萌芽未長, 故不可言木. 丑爲二陽, 則陽氣已長, 草木之根芽, 已勾萌于陰土之中. 至寅而三陽將及透地, 陽氣已旺, 萌芽茁長, 將出未出之時也. 卯則陽氣已出, 草木發生, 正厥陰木旺之時, 邪氣至此而解矣, 故曰從丑至卯上.”

64) 明文堂編輯部 校閱. 原本周易 乾. 서울. 明文堂. 1999. p.65.

65) 明文堂編輯部 校閱. 原本周易 坤. 서울. 明文堂. 1999. p.1137.

66) 明文堂編輯部 校閱. 原本周易 坤. 서울. 明文堂. 1999. p.1137.

67) 錢潢 著, 周憲賓·陳居偉 校注. 傷寒溯源集. 北京. 學苑出版社. 2009. p.8. “厥陰一經, 爲陰氣已極, 猶天地之陽氣已長, 且欲出地, 故爲陰陽相半之經, 所以厥熱互見, 難以分篇.”

68) 錢潢 著, 周憲賓·陳居偉 校注. 傷寒溯源集. 北京. 學苑出版社. 2009. p.374. “傷寒先厥後發熱而利者, 必自止, 見厥復利.”

69) 錢潢 著, 周憲賓·陳居偉 校注. 傷寒溯源集. 北京. 學苑出版社. 2009. p.375. “傷寒始發熱六日, 厥反九日而利. 凡厥利者, 當不能食, 今反能食者, 恐爲除中. 食以索餅, 不發熱者, 知胃氣尚在, 必愈, 恐暴熱來出而復去也. 後三日脈之, 其熱續在者, 期之旦日夜半愈. 所以然者, 本發熱六日, 厥反九日, 復發熱三日, 并前六日, 亦爲九日, 與厥相應, 故期之旦日夜半愈. 後三日脈之而脈數, 其熱不罷者, 此爲熱氣有餘, 必發癰膿也.”

70) 錢潢 著, 周憲賓·陳居偉 校注. 傷寒溯源集. 北京. 學苑出版社. 2009. p.375. “傷寒先厥後發熱, 下利必自止, 而反汗出咽中痛者, 其喉爲痺. 發熱無汗而利必自止. 若不止, 必使膿血, 使膿血者, 其喉不痺.”

71) 錢潢 著, 周憲賓·陳居偉 校注. 傷寒溯源集. 北京. 學苑出版社. 2009. p.373. “傷寒病, 厥五日, 熱亦五日. 設六日當復

341조⁷²⁾, 342조⁷³⁾에서 厥熱勝復의 양상을 살필 수가 있으나, 厥陰病이 厥熱勝復證으로만 구성된 것은 아니므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둘째 錢潢은 『傷寒論』 3조, 38조, 166조, 169조의 註釋, 傷寒論無發癍說에서 인체의 生理를 설명할 때 易學의 관점으로 설명했다. 上記 條文의 註釋과 논설에서 錢潢이 易學의 관점으로 설명한 것의 공통점은 陽氣는 寒水 안에 潛藏되어 坎卦(☵)의 형상으로 표상화할 수가 있고, 寒水 안에 潛藏된 眞陽을 바탕으로 穀氣를 써서 衛氣를 만들어 내며, 陽氣가 寒水 밖으로 나오지 않고 潛藏될 수 있게 잘 관리해야 하며, 陽氣의 활동에 따라 重天乾卦(☰)의 爻辭를 써서 ‘潛龍勿用’, ‘見龍在田’, ‘飛龍在天’ 등으로 나타낼 수 있고, 陽氣의 흐름이 하부로부터 상부로 진행하므로 寸脈에서 胸部의 상태를 파악할 수가 있고, 背부위가 動靜으로 따지면 靜으로써 陰에 속하지만, 經脈으로 따지면 陽에 속하는 등 관점에 따라 陰陽이 변화할 수 있음과 겨울에 날씨가 따뜻하면 陽氣를 潛藏할 수가 없어서 疫病을 앓게 됨을 易學의 관점으로 설명하였다.

셋째 錢潢은 『傷寒論』 61조, 131조, 179조, 273조, 281조, 373조, 392조의 註釋에서 晝日煩躁不得眠, 痞症, 脾約證, 太陰病證, 但欲寐, 渴症, 陰陽易 등의 病證病理를 易學의 관점으로 설명했다. 낮에煩躁하여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을 『周易·坤卦(☷)·文言傳』에 나오는 “陰疑於陽必戰, 爲其嫌於無陽.”⁷⁴⁾을 인용하여 陰陽相爭으로 설명하였고, 痞症의 발생을 『周易·天地否卦(☷)·象傳』에 나오는 “天地不交而萬物不通也.”⁷⁵⁾를 차용하여 天地의 氣가 서로 교통하지

않아서 否를 이룬다고 설명했다. 錢潢 외에 方有執도 痞症의 病理를 『周易』을 인용하여 설명했다.⁷⁶⁾

脾約證은 太陽病에 發汗法, 攻下法, 利小便法 등을 써서 津液을 망실함으로 인하여 胃에 사방으로 산포할 津液이 없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水雷屯卦(☵)의 九五爻辭인 ‘屯其膏’⁷⁷⁾를 차용하여 易學의 관점으로 설명하였다. 水雷屯卦(☵)는 『周易』에서 乾卦와 坤卦 다음에 나오는卦로 天地가 생성된 뒤에 만물이 생성될 때의 어려움을 나타내는卦이다. 九五爻 爻辭인 ‘屯其膏’는 水雷屯卦(☵)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때라서 九五 자리의 임금이 백성들에게 베풀려는 혜택(膏)이 잘 전달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나타내는 爻辭인데, 錢潢은 脾가 胃를 위해서 운행해야 하는 津液이 胃에 없는 상황을 ‘屯膏之吝’이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했는데, 이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傷寒論』 273조 太陰病 提綱 註釋에서 錢潢은 太陰病에서 나타나는 腹滿, 時腹自痛 등의 腹 관련 병증을 『周易·說卦傳』에 나오는 ‘坤爲腹’을 인용하여 설명하였다. 錢潢은 陽明을 坤土, 太陰을 艮土라고 했다가 太陰病을 坤爲腹과 연관시켜 설명하여 일견 서로 모순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錢潢이 ‘坤爲腹’이라고 한 것은 인체의 전면부를 순행하는 足太陰脾經의 위치 조건을 강조한 것이고, 艮土는 脾主運化의 기능적인 측면을 강조한 것으로써 각각 어디에 의미를 두느냐에 따라 八卦와의 연관성이 조금씩 변할 수 있고, 이것이 변화하는 象을 항상 염두하여 고찰하는 易의 정신이라고 생각한다.

而外剛, 內小人而外君子, 小人道長, 君子道消也.”

厥, 不厥者自愈. 厥終不過五日, 以熱五日, 故知自愈.”
72) 錢潢 著, 周憲賓·陳居偉 校注. 傷寒溯源集. 北京, 學苑出版社. 2009. p.373. “傷寒發熱四日, 厥反三日, 復熱四日, 厥少熱多, 其病當瘳. 四日至七日, 熱不除者, 必便膿血.”
73) 錢潢 著, 周憲賓·陳居偉 校注. 傷寒溯源集. 北京, 學苑出版社. 2009. p.374. “傷寒厥四日, 熱反三日, 復厥五日, 其病爲進. 寒多熱少, 陽氣退, 故爲進也.”
74) 明文堂編輯部 校閱. 原本周易 乾. 서울, 明文堂. 1999. p.188. “陰疑於陽必戰, 爲其嫌於無陽也, 故稱龍焉, 猶未離其類也, 故稱血焉, 夫玄黃者, 天地之雜也, 天玄而地黃.”
75) 明文堂編輯部 校閱. 原本周易 乾. 서울, 明文堂. 1999. p.306. “象曰否之匪人, 不利君子貞, 大往小來, 則是天地不交而萬物不通也, 上下不交而天下無邦也, 內陰而外陽, 內柔

76) 方有執 著, 曹炳章 編. 傷寒論條辨(中國醫學大成續集 25).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0. pp.57-58, p.156. “病發於陽而反下之, 熱入因作結胃, 病發於陰而反下之, 因作痞. 所以成結胃者, 以下之太早故也. 反言板. 此原結胃與痞之因, 發於陽發於陰見第八條. 結胃, 大抵以結鞭高當於胃爲名, 痞者, 否塞於中, 而以天地不交之痞爲義.” “脈浮而緊, 而復下之, 緊反入裏則作痞. 按之自濡, 但氣痞耳. 濡與軟同, 古字通用. 復亦反也. 緊反入裏, 言寒邪轉內伏也, 濡言不鞭不痛而柔軟也. 痞言氣隔不通而否塞也. 易曰天地不交而萬物不生也. 內陰而外陽也, 內柔而外剛也. 本義曰, 蓋乾住居外而坤來居內也. 雖然頗否有先否後喜之象, 故君子不可不勉, 學者不可不知所務.”
77) 明文堂編輯部 校閱. 原本周易 乾. 서울, 明文堂. 1999. p.200. “九五, 屯其膏, 小貞吉, 大貞凶.”

但欲寐의 증상은 『周易·繫辭上傳』에 나오는 “闔戶謂之坤.”⁷⁸⁾과 연결지어서 설명하였는데, 少陰病이 들었을 때 다만 잠만 자려고 하는 행위는 陰이 고요하여 닫는 성질과 유사하므로 『周易』의 “闔戶謂之坤.”에 비유하여 但欲寐를 설명한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錢潢이 少陰病 但欲寐 증상을 설명할 때 『周易』만 인용해서 설명한 것은 아니고, 衛氣 순행과 관련한 『靈樞』 문장을 인용하여 但欲寐의 증상을 설명하기도 했는데, 錢潢이 기존의 衛氣의 운행으로 寤寐를 설명하던 방식에서 한 발 더 나아가 『周易』을 인용하여 但欲寐의 증상을 설명한 것은 의학의 陰陽論과 『周易』의 陰陽論이 서로 어긋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錢潢이 易學的 觀點을 통해 『傷寒論』의 病證을 보려는 시도는 의학적 陰陽論을 풍부하게 했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錢潢은 白頭翁湯 註釋에서 太陰病에 나타나는 自利不渴, 少陰病에 나타나는 自利而渴, 厥陰病에 나타나는 消渴의 양상을 구분하였고, 갈증의 양상을 분별하여 설명하는 과정에서 易學的인 관점으로 설명하였다. 少陰은 坎水로써 卦로 따지게 되면 地雷復卦(☱)이고, 陰中에 陽을 함유하고 있는 體로 龍火를 갈무리하고 있어서 陰盛하여 陽을 상부로 꺾박하게 되면 虛陽이 상부에 있어 갈증이 나타나고, 厥陰經에 이르면 陰이 지극한 상황에서 陽氣가 이미 자라나 卦로 따지면 地天泰卦(☱)로 陰陽이 서로 반반씩인 體가 되어, 陽氣가 또한 나오지만, 寒邪가 裏에 있기 때문에 배고파도 먹을 수가 없고, 먹으면 虺蟲을 토하는 陰寒의 見證이 있고, 陰氣가 陽을 다 그쳐 위로 거슬러서 마침내 氣가 올라가 心を 치고 心中이 아프면서 열이 있고 消渴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錢潢은 陰陽易의 註釋에서 男女二氣의 交合을 『周易』을 인용하여 설명하였고, 燒裨散의 치료원리를 설명하는 과정에 『周易·澤山咸卦(☱)』의 象傳을 인용하여⁷⁹⁾ 男女二氣가 感應하여 서로 氣를 주고받음

과 『周易·乾卦(☰)·文言傳』의 ‘物從其類’, ‘同氣相求’ 등의 말을 인용하여⁸⁰⁾ 일종의 生殖器 질병인 陰陽易을 속옷을 이용하여 치료하는 원리를 설명하였다.

넷째 錢潢은 大靑龍湯, 眞武湯, 大小靑龍湯 方劑의 효과 비교, 十棗湯, 附子瀉心湯, 大柴胡湯, 白虎湯 등 方劑 설명에 있어서 易學的 觀點으로 설명하였다. 錢潢은 大靑龍湯 方解에서 靑龍의 象을 坎卦(☵)와 震卦(☳)를 인용하여 그 動靜을 파악하고, 重天乾卦(☰)의 上九爻辭를 인용하여 그 부작용을 설명했다. 『傷寒論』 註釋家 중 成無己는 大靑龍湯을 설명할 때 靑龍이 東方 甲乙木을 다스리는 神이고, 發生의 時令을 주관한다고 설명했지만⁸¹⁾, 錢潢처럼 坎卦, 震卦 등과 연결시키거나 그 부작용을 爻辭를 인용하여 설명하지는 않았다. 眞武湯 方解에서 錢潢은 眞武湯의 전체적인 象을 水中金으로 잡고서 潛龍이라고 했는데, 이는 下焦의 眞陽이 虛하여 孤陽이 飛越해서 나타나는 厥逆, 筋惕, 肉瞤, 心下悸, 頭眩, 身瞤動, 振振欲擗地 등 擾動의 증상을 龍이 연못으로 돌아가지 못한 象으로 파악하고서, 茯苓과 附子 등이 들어가는 眞武湯을 써서 龍을 潛藏케 함으로써 救逆한다고 易學的 觀點으로 설명하였다. 『傷寒論』 註釋家 중 喻嘉言도 眞武湯의 효과를 龍을 潛藏케 하여 보이지 않게 한다고 설명하였다.⁸²⁾

錢潢은 小靑龍湯의 方劑를 大靑龍湯과 비교할 때 小靑龍湯이 方劑의 형세가 龍이 엎드리고, 자벌레가 몸을 굽혀서 大靑龍湯처럼 龍이 날아오르는 형세와 같지 않다고 易學的인 관점으로 설명한 것은 똑같이 靑龍이라고 했지만, 大小의 분별에 따라 어떻게 작

說, 男下女. 是以亨利貞取女吉也.”

80) 明文堂編輯部 校閱. 原本周易 乾. 서울. 明文堂. 1999. p.144. “九五曰, 飛龍在天, 利見大人, 何謂也. 子曰, 同聲相應, 同氣相求, 水流濕, 火就燥, 雲從龍, 風從虎, 聖人作而萬物覩, 本乎天者親上, 本乎地者親下, 則各從其類也.”

81) 成無己 著, 張國駿 編. 傷寒明理論(成無己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4. p.183. “大靑龍湯方. 靑龍, 東方甲乙木神, 應春而生, 專發生之令.”

82) 喻嘉言 著, 陳燭 編. 尚論篇(喻嘉言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44. “蓋眞武乃北方司水之神, 龍惟藉水可能變化, 而水者, 眞武之所司也. 設眞武不與之以水, 靑龍之不能奮然升天可知矣. 故方中用茯苓白朮芍藥附子, 行水收陰, 醒脾崇土之功, 多于回陽, 名之曰眞武湯. 乃收拾分馳離絕之陰陽, 互鎖于少陰北方之位, 其所收拾者, 全在收拾其水, 使龍潛而不能見也.”

78) 明文堂編輯部 校閱. 原本周易 坤. 서울. 明文堂. 1999. p.1056. “是故闔戶謂之坤, 闔戶謂之乾, 一闔一闢謂之變.”

79) 明文堂編輯部 校閱. 原本周易 乾. 서울. 明文堂. 1999. p.545. “象曰咸, 感也. 柔上而剛下, 二氣感應以相與, 止而

용이 다른지 설득력 있게 풀이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心下的 水氣로 인하여 헛구역질, 發熱, 기침, 설사, 혈떡임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밖으로 發散하는 증상으로 小青龍湯을 써서 수렴시키는데, 이는 錢潢이 小青龍湯 方劑 효용의 象을 잘 포착한 것이고, 통증이 있고 땀이 나오지 않으며 煩躁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막혀있는 증상으로 大靑龍湯을 써서 發散시키는데, 錢潢이 이를 날아오르는 형세라고 표현한 것은 大靑龍湯 方劑 효용의 象을 잘 포착하여 易學的 관점으로 풀이한 것으로 大小靑龍湯을 구분하여 설득력 있게 풀이한 것이다.

錢潢은 甘遂, 大戟, 芫花와 같은 有毒한 藥을 넣어 치료하는 十棗湯의 효과도 『周易·地水師卦(䷆)·彖傳』을 인용하여 설명했는데, 이는 有毒한 藥의 작용이 군대를 움직이는 일이 비록 毒처럼 백성을 傷하게 하는 일이지만, 그 목적을 백성들이 이해하면 백성들이 자신들의 상처를 감수하더라도 순종하는 것과 같이 十棗湯에 甘遂, 大戟, 芫花와 같은 有毒한 藥이 있지만 症에 맞춰서 잘 쓸 경우에는 毒이 곧 藥으로 작용하여 환자를 살리는 작용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錢潢 외에 方有執도 地水師卦의 初六爻辭를 인용하여 用藥의 엄밀함을 설명하였다.⁸³⁾

錢潢은 附子瀉心湯과 大柴胡湯의 心下痞 치료효과를 ‘傾否’, ‘先否後喜’ 등 天地否卦(䷋)의 上九爻辭를 차용하여 易學的 관점으로 설명했는데, 이는 天地否卦(䷋)는 원래 전반적인 卦의 흐름이 不通過 否塞을 의미하지만, 항상 否塞할 수 없고 終局에 가서는 기울어지게 되고, 否塞한 것이 기울어져 없어지면 不通過가 通으로 전환하여 기쁨이 되므로 痞證의 치료를 天地否卦(䷋)의 上九爻辭를 써서 나타난 것은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한다. 錢潢 외에 方有執도

天地否卦의 上九爻辭를 써서 附子瀉心湯의 효과를 설명하였다.⁸⁴⁾

錢潢은 白虎湯 方解에서 白虎가 西方 兌金의 神이 되어, 天地의 맑고도 엄숙한 수렴하는 氣라고 하였고, 이로써 수렴하고, 胃熱을 淸解하여 暑病을 치료한다고 하였는데, 兌는 文王八卦方位圖⁸⁵⁾로 따지면 西方에 위치하고, 『周易·說卦傳』에서도 “兌, 正秋也, 萬物之所說也, 故曰說言乎兌.”⁸⁶⁾라고 하여 收斂하는 가을과 연관되므로, 淸解胃熱하는 白虎湯의 方解를 易學的 관점으로 풀이한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다섯째 錢潢은 桂枝, 茯苓, 附子, 鉛丹, 肉桂 등의 藥性を 易學的 관점으로 설명했다. 桂枝湯에 들어가는 桂枝는 陽木으로 東南쪽에서 生長하여 東南震巽의 發生의 全氣를 얻어 命門을 補助하고, 百脈을 宣通시키며, 울체된 風邪를 풀어낼 수가 있다고 하였는데, 桂枝가 동남쪽 震巽의 發生之氣를 얻었다는 것은 文王八卦方位圖⁸⁷⁾로 따지면 震은 東方에 위치하고, 巽은 東南方に 위치하며, 『周易·說卦傳』에서도 “萬物出乎震, 震東方也. 齊乎巽, 巽東南也. 齊也者, 言萬物之潔齊也.”⁸⁸⁾라고 하여 震巽과 東南方の 연관성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桂枝를 東南方에서 자라나 生氣를 갖췄다고 하고, 이로써 울체된

84) 方有執 著, 曹炳章 編. 傷寒論條辨(中國醫學大成續集 25).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0. p.156, pp.157-158. “脈浮而緊, 而復下之, 緊反入裏則作痞. 按之自滿, 但氣痞耳. 濡與軟同, 古字通用. 復亦反也. 緊反入裏, 言寒邪轉內伏也, 濡言不鞭不痛而柔軟也. 痞言氣隔不通而否塞也. 易曰天地不交而萬物不生也. 內陰而外陽也, 內柔而外剛也. 本義曰, 蓋乾往居外而坤來居內也. 雖然傾否有先否後喜之象, 故君子不可不勉, 學者不可不知所務.” “心下痞, 而復惡寒汗出者, 附子瀉心湯主之. …中略… 痞本陰邪內伏, 而虛熱上凝, 復惡寒汗出, 則表虛而陽不爲衛護可知矣. 瀉心湯, 固所以爲淸熱傾否之用, 加附子蓋所以爲斂其汗而固其陽也. 黃芩爲附子而更加, 表裏兩解具見矣.”

83) 方有執 著, 曹炳章 編. 傷寒論條辨(中國醫學大成續集 25).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0. pp.474-475. “問用藥曰, 用藥如用兵, 兵非可玩之器, 文修武備, 盛世長策, 無事而動, 不惟徒取費耗, 殆將啟釁招尤. 事不容已, 兵興師出, 我既爲師, 彼則爲敵, 大敵在前, 必察其情, 虛實眞僞, 得其情而可以無疑矣. 毋驕兵以輕敵, 毋慢兵以失機, 順天時, 因地利, 率人和, 承物宜. 旗鼓嚴明, 士卒用命, 有定謀, 有成算, 整行陣, 飭奇正, 然後戰勝攻取可必. 不則憧憧禦敵, 其不敗也鮮矣. 易曰, 師出以律, 否臧凶, 不知此, 不足與言用藥之義.”

85) 明文堂編輯部 校閱. 原本周易 乾. 서울. 明文堂. 1999. p.65.
86) 明文堂編輯部 校閱. 原本周易 坤. 서울. 明文堂. 1999. p.1137.
87) 明文堂編輯部 校閱. 原本周易 乾. 서울. 明文堂. 1999. p.65.
88) 明文堂編輯部 校閱. 原本周易 坤. 서울. 明文堂. 1999. p.1137. “萬物出乎震, 震東方也. 齊乎巽, 巽東南也. 齊也者, 言萬物之潔齊也.”

風邪를 散解한다고 한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錢潢은 茯苓四逆湯 方劑에서 茯苓과 附子 및 通脈四逆湯 加減法 중 附子の 藥性を 易學的 觀點으로 설명했다. 茯苓四逆湯에서 茯苓의 藥性を 淡滲하여 降下하고, 無形의 火를 이끌어 坎水의 근원으로 끌어 들인다고 하였고, 附子の 藥性を 溫經하고, 下焦로 直達하며, 龍火를 이끌어서 歸源한다고 설명했는데, 이는 茯苓과 附子를 우리 인체의 水火升降을 조절할 수 있는 藥으로 파악하고서 坎水, 龍火 등 易學的 觀點을 차용하여 설명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通脈四逆湯에서는 附子가 坎中의 眞陽을 大補하며, 引火歸源하여 導龍歸海한다고 설명했는데, 이는 寒水 속에 潛藏되어 있어야 하는 眞陽이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벗어나 위로 뜨게 되면 下利清穀, 手足厥逆, 脈微欲絕, 身反不惡寒, 面色赤 등의 陰盛格陽證이 나타나므로 附子 등을 써서 眞陽을 원래의 자리로 되돌리고, 大補하여 病증을 치료해야 함을 坎中眞陽, 引火歸源 등 易學的 觀點을 차용하여 설명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錢潢은 柴胡加龍骨牡蠣湯 方解에서 鉛丹의 藥性を 易學的 觀點으로 설명하였다. 鉛丹은 重金속으로 무거우면서 五行으로 따졌을 때 金에 속하여 鎮驚의 효능을 발휘하고, 鉛丹의 원재료는 北方黑色이었으나, 제련을 통해 赤色으로 변화한 것을 北方水와 南方火의 사립으로 水火既濟(☵☲)가 되었다고 보고, 이로써 肝邪로 인하여 발생한 驚症을 다스린다고 보았는데, 이는 타당한 설명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水火는 陰陽의 징조로써 陰陽의 성질을 대변하는데, 陰陽의 相爭과 相薄을 통해 얻어진 水火既濟(☵☲)의 평온한 氣는 요동치는 肝木의 邪氣를 다스릴 수가 있기 때문이다.

錢潢은 奔豚의 病機를 腎藏陰寒의 氣가 상부를 공격하는 것으로 보고, 桂枝加桂湯을 써서 溫經散寒시켜 치료한다고 했는데, 桂枝加桂湯에서 肉桂의 역할을 地中來復의 一陽, 즉 腎中의 元陽을 補益하여 치료하는 것이라고 易學的 觀點으로 설명하였다. 重地坤卦(☷) 初六陰爻가 陽爻로 바뀌면 地雷復卦(☱)가 되어 陽氣가 와서 회복된다는 의미로 ‘來復’이라고 했는데, 錢潢이 이를 차용하여 易學的 觀點으로

설명한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重地坤卦(☷) 맨 아래의 陰爻가 陽爻로 바뀌어 地雷復卦(☱)가 되는 것은 六爻 중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爻의 변화를 말하는데, 奔豚證은 下焦腎藏의 陽虛로 陰寒이 발생하여 상부를 공격하는 것으로 그 치료는 下焦의 陽氣回復이 선결조건이므로 肉桂를 써서 地中來復의 一陽을 회복시켜 奔豚證을 치료한다고 한 것은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된다.

여섯째 錢潢은 欲解時 설명에 있어서 易學的 觀點으로 설명했다. 병이 풀리는 때는 그 기운이 왕성하여 同氣相求의 측면에서 풀리는 때도 있고, 하나의 기운과 다른 하나의 기운이 맞부딪혀 서로 상쇄된다는 측면에서 병이 풀리는 때도 있는데, 太陽病, 少陽病은 同氣相求의 측면에서 欲解時를 易學的 觀點으로 설명하였고, 陽明病, 太陰病, 少陰病, 厥陰病은 서로 상반된 기운이 맞부딪혀 서로 상쇄된다는 측면에서 欲解時를 易學的 觀點으로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다.

IV. 結論

이상에서 『傷寒溯源集』에 나타난 易學的 觀點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錢潢은 三陰三陽 중 少陽을 雷天大壯卦로, 厥陰을 地天泰卦로 표상화했으며, 太陰을 艮土로, 陽明을 坤土로 파악하였고, 少陰을 地雷復卦로 표상화했으나, 太陽은 卦象으로 표상화하지 않는 등 일률적이지 않았다.
2. 錢潢은 『傷寒論』 3조, 38조, 166조, 169조의 註釋, 傷寒論無發瘕說에서 인체의 生理를 설명할 때 주로 陽氣의 변화를 易學的 觀點으로 설명했는데, 이는 인체의 陽氣를 중시하는 『傷寒論』과 陽을 중시하는 『周易』이 서로 상통하는 측면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3. 錢潢은 晝日煩躁不得眠, 痞症, 脾約證, 太陰病證, 但欲寐, 渴症, 陰陽易 등의 病證을 易學的 觀點으로 설명했는데, 의학의 陰陽論과 『周易』의 陰陽論이 서로 어긋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 의학적 陰陽論을 풍부히 하여 그 의의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4. 錢潢은 大靑龍湯, 眞武湯, 大小靑龍湯 方劑의 효과 비교, 十棗湯, 附子瀉心湯, 大柴胡湯, 白虎湯 등 方劑 설명에 있어서 易學의 관점으로 설명했는데, 이는 方劑의 전체적인 象을 잡는 데에 도움을 주며, 그 비유가 적절하였다고 생각한다.
 5. 錢潢은 桂枝, 茯苓, 附子, 鉛丹, 肉桂 등의 藥性を 易學의 관점으로 설명했는데, 그 설명방식은 易學의 특징과 藥材의 효능이 잘 결합한 설명방식이라고 생각한다.
 6. 錢潢은 六經病欲解時 설명에 있어서 易學의 관점으로 그 이치를 설명했으며, 병이 풀리는 때는 그 기운이 왕성하여 同氣相求의 관점에서 풀리는 때도 있었고, 서로 상반된 기운이 상쇄됨으로써 병이 풀리는 때도 있었는데, 그 이치를 易學의 인 관점을 결합하여 설득력 있게 설명했다.

上記와 같은 이유로 『傷寒溯源集』은 『傷寒論』을 易學의 관점으로 註釋한 傷寒論註釋書로서 그 의의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 明文堂編輯部 校閱. 原本周易 乾. 서울. 明文堂. 1999.
4. Mingwentang editorial staff revise. Yuanbenzhouyi kun. Seoul. Mingwentang. 1999.
明文堂編輯部 校閱. 原本周易 坤. 서울. 明文堂. 1999.
 5. Qian H. Zhou XB, Chen JW annot.. Shanghansuyuanji. Beijing. Xueyuanchubanshe. 2009.
錢潢 著, 周憲賓·陳居偉 校注. 傷寒溯源集. 北京. 學苑出版社. 2009.
 6. Yu JY, Chen Yi ed.. Shanglunpian(Yujiayanyixuequanshu). Beijing. Zhongguozhongyiyaochubanshe. 1999.
喻嘉言 著, 陳熠 編. 尚論篇(喻嘉言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References

1. Cheng WJ, Zhang GJ ed.. Shanghanminglilun(Chengwujiyixuequanshu). Beijing. Zhongguozhongyiyaochubanshe. 2004.
成無己 著, 張國駿 編. 傷寒明理論(成無己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4.
2. Fang YZ, Cao BZ ed.. Shanghanluntiaobian(Zhongguoyixuedacheng xuji vol.25). Shanghai. Shanghai Science and Technology Press. 2000.
方有執 著, 曹炳章 編. 傷寒論條辨(中國醫學大成續集 25).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0.
3. Mingwentang editorial staff revise. Yuanbenzhouyi qian. Seoul. Mingwentang. 1999.